북한과 글로벌 사우스 :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 맺기

저자 김태균(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노현종(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준화(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편집 조교 안형률(서울대학교 외교학과)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SNUAC
Asia-Africa Center

목차

Ⅰ. 들어가며 ····· 5

Ⅱ. 사회주의자들의 식민주의 비판과 연대 ····· 10

1. 사회주의자들과 피식민지인과의 조우 ····· 10

2. 전지구적 냉전과 인종주의: 두 보이스와 파농의 변화를 중심으로 ····· 13

Ⅲ. 사회주의-탈식민 중견국가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대 형성 ··· 20

1. 사회주의-탈식민 중견국가 ····· 20

2. 아프리카의 발전모델로서의 ‘자립적 민족경제’ ····· 21

3. 북한 모델의 확산과 1964년 평양 선언 ····· 28

Ⅳ. 북한과 아프리카의 연대: 나미비아를 중심으로 ····· 38

Ⅴ. 나가며 ····· 56

참고문헌 ····· 58

그림/표 순서

[표 1] 나미비아 조사 일정 ····· 7
[표 2] 나미비아 일반 사항 ····· 38
[표 3] 유엔 나미비아 관계 기여금 제공 실적 ····· 45
[표 4] 북한-나미비아 주요 관계(1990-1992) ····· 46
[표 5] 영웅문 피매장자 ····· 50
[그림 1] 인터뷰 1 ····· 8
[그림 2] 나미비아 국립문서보관소 ····· 8
[그림 3] 인터뷰 2 ····· 8
[그림 4] 인터뷰 3 ····· 8
[그림 5] 반공주의와 인종주의의 결합 된 미국사회 ····· 16
[그림 6] 모택동과 두 보이스 1959년 3월 ····· 16
[그림 7] 강선제강소를 방문한 호치민 1957년 ····· 30
[그림 8] 황해제철소를 방문한 니예레레 ····· 35
[그림 9] 탄자니아 철도를 건설하는 중국 ····· 35
[그림 10] 인터뷰 4 ····· 39
[그림 11] 샘 누조마 평양 방문(1983년) ····· 43
[그림 12] SWAPO 평양 방문(1986년) ····· 43
[그림 13] 샘 누조마 초청 방문(1989년) ····· 43
[그림 14] 수교 의정서 서명(1990년 3월 28일) ····· 46
[그림 15] 영웅릉 ····· 48
[그림 16] 묘지석 ····· 49
[그림 17] 청동상 ····· 49
[그림 20] 벽화 ····· 50
[그림 21] 라이더 동상(Rider Statue) 옆 해방 동상 ····· 52
[그림 22] 독립기념박물관 ····· 52
[그림 23] 독립기념박물관 1층 ····· 53
[그림 24] 독립기념박물관 2층 ····· 53
[그림 25] 독립기념박물관 3층 ····· 53
[그림 26] 독립기념박물관 3층(파노라마) ····· 53

I

들어가며

Ⅰ 들어가며

■ 본 연구는 북한과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기반 연구에 해당됨. '아프리카에서의 두 개의 한국(Two Koreas in Africa)'이라는 학문적 공간을 사실 축적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통해 향후 더욱 발전된 순수 학술적 접근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한과 나미비아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용적 접근 또한 달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 시점과 차원에서 조명하도록 하겠음.

- 첫째, 북한과 아프리카가 경험한 냉혹한 '식민주의'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기여를 논의할 예정임. 아시아-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서구와 일제의 침탈로부터 주권을 상실하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받았음. 이러한 공통 경험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시차를 두고 설립된 신생독립국가들이 국익을 넘어 공통의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 정서적 기반이었음.[1)]

- 둘째,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음. 분단 및 한국전쟁 전후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소련 및 중국과의 진영외교에 초점을 두었음. 하지만 스탈린 격하운동, 1956년 8월 종파사건, 1955년 반둥회의, 그리고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이 UN에 가입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음. 이 시기 사회주의 탈식민 중견국가의 위치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으며, 이들과 '공명'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 특히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모델의 유용성, 사회주의 국제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성을 유지한 점은 아프리카 국가와의 연대를 이룩할 수 있는 자산이었음.

1) 남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를 분석한 학술적인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발간되었음.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옥창준, "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와 '평양선언'" 『통일과 평화』12(1) (2020), 최익제, "제 30차 유엔총회 북한의 한국문제(Question of Korea) 결의안 통과에 관한 연구: 북한의 대중·소 교섭 레버리지와 비동맹외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학위논문 2022)를 들 수 있음. 위의 연구는 학계에서 다소 낯선 주제를 촘촘한 자료를 기초로 잘 논증한 강점이 있음. 다만 위의 연구들은 주로'대한민국'의 시각으로 작성되었고, 비동맹 혹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시각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또한 북한과 비동맹국가들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관계 및 이해관계를 넘어선 '연대'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잘 조명되지 않았음. 아프리카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비동맹국가 사이의 다소 복합적인 연대와 이익을 다룬 연구는 도미엔 『붉은혈맹』(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상범, "냉전기 북한의 자주연대 외교연구: 북한, 베트남, 쿠바 연대 외교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을 들 수 있음.

- 셋째, 북한과 아프리카의 연대의 사례 연구로써 나미비아를 중점으로 분석하겠음. 본 연구가 여러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나미비아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나미비아의 독립투쟁은 1960년대부터 전개되었지만, 냉전 종식 무렵에야 가까스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음. 상당히 장기간 동안 전개된 독립투쟁으로 말미암아 북한과의 관계 역시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음. 특히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편에 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투쟁을 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나미비아를 지원하는 것이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였음. 이러한 견지에서 나미비아는 독립전 남아공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로써 한국 전쟁에 참전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 게다가 1990년에 독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권당인 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의 건국 인사들이 2000년대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원로가 되어 정치권에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2002년 영웅릉 건설, 2008년 나미비아 국방장관의 평양방문, UN 제재 하에서 2016년 나미비아 인근 지역에서 탄약공장 건설 및 노동자 파견 등이 이루어졌음. 이처럼 나미비아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음.

■ 현지조사

- 본 연구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내의 문헌이 주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어 있음. 북한의 노동신문과 공간문헌에서도 북한만의 입장만 서술되어 있음. 따라서 국내의 자료만으로는 아프리카 국가가 당시 무엇을 기획하였고, 한반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현지 조사를 통해 다양한 자료와 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둘째, 국내에서 북한과 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며 현지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가 많지 않음. 따라서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사항을 보다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나미비아 현지 조사를 통해 나미비아대학교 교수, 나미비아 외교부 전직 대사, 나미비아 독립 연구원, 독립 기자, 나미비아 전 행정부 차관 등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와 인터뷰를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하였음. 또한 북한 만수대가 시공한 국립 영웅 묘지와 독립 기념관을 방문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으며 관계기관 담당자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더 나아가 나미비아 국립문서보관소(NAN)와 한국 외교부 사료관에 있는 한국과 북한 관련 외교 문서를 직접 확인하였음.

- 조사 일정: 2024. 08. 09. - 2024. 08. 27 / 김태균, 노현종, 조준화

[표 1] 나미비아 조사 일정

일 시	대상 및 장소	비 고
8. 12.	• Prof. Haileleu(Namibi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Prof. Michael Mutonga(Lottery Board)	
8. 14.	• Mr. John Grobler (Independnet Journalist) • Mr. Klemens, Prof. Sifiso and Prof. Asa (Namibia Univeristy of Science and Technology)	
8. 19.	• Mr. Graham Hopwood, Ndeshi Fikameni, Tia-zia and Gaores)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Graham Hopwood, Ndeshi Fikameni, Tia-zia and Gaores) • 한광용(나를 만나는 숲)	
8. 20.	• 나미비아 외교부 전직 대사	
	• 나미비아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of Namibia (NAN) 한국 외교부 외교사료관	

- 나미비아 나미비아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of Namibia: NAN)는 1939년에 설립되어 현재 빈트후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미비아 국립도서관과 같은 건물을 공유하며 교육, 예술, 문화부 산하의 국립도서관 및 문서보관 서비스에 속해있음. 초기에는 독일령 남서아프리카의 행정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1939년 남아프리카 정부에 의해 남서아프리카 문서보관소로 설립됨.

- 국립문서보관소는 나미비아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자와 대중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022년 국립문서보관소는 6,000여장의 지도와 건축 도면, 40,000여장의 사진, 30,000여개의 시청각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및 법원 기록은 10km 이상의 선반을 차지하고 있음. 2024년 1월에는 국가의 풍부한 문서 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National Archives App을 출시하여 디지털화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과 홍보에 힘쓰고 있음.

[그림 1] 인터뷰 1

(저자 본인 촬영)

[그림 2] 나미비아 국립문서보관소

(저자 본인 촬영)

[그림 3] 인터뷰 2

(저자 본인 촬영)

[그림 4] 인터뷰 3

(저자 본인 촬영)

「 Ⅱ 」

사회주의자들의 식민주의 비판과 연대

II 사회주의자들의 식민주의 비판과 연대

■ 볼쉐비키 혁명이 발생하기 이전인 20세기 초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자행되고 제국주의의 무자비한 폭력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데 앞장섰음. 이는 사회주의와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의 최초의 조우였으며, 추후 소련, 중국,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대를 추동시킨 원초적인 에너지였음.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사례 가운데 의미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음.

1 사회주의자들과 피식민지인과의 조우

■ **벨기에 식민지 콩고: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는 콩고 자유국이라는 괴뢰국가를 건설하여 주민들의 생명을 살해하고 자원을 약탈하였음.**

- 콩고에서 벌어졌던 학정을 고발하였던 언론인 에드먼드 모렐(Edmund Dene Morel, 1873-1924)은 약 10년 동안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벨기에 당국과 마찰을 빚었음. 그는 이후 영국 노동당에 입당하여 처칠을 꺾고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음.

- 1894년부터 벨기에 의회에 진출하였던 벨기에 사회주의당은 콩고에서 벌이는 사업들은 자국의 노동자들의 고통을 증감시키는 예산 낭비이며, 동시에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였음.[2] 1908년 콩고자유국으로 파견된 미국인 흑인 선교사 윌리엄 쉐퍼드(William Henry Sheppard, 1865-1927)는 콩고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언론에 폭로하였음. 이에 카사이지역의 고무회사는 그를 명예훼손 죄로 콩고법정에 고소하였으며, 8만 프랑의 거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요청하였음. 이 시기 에드먼드 모렐은 벨기에의 사회주의당의 지도자인 에밀 반더발데(Emile Vandervelde, 1866-1938)가 직접 그의 변호를 담당하기 위해 콩고를 방문하였음. 당시 흑인을 변호한다는 비난을 '정의의 법정에서 이방인은 없다'라는 말로 일갈하였고, 피고인들의 무죄선고를 이끌어 냈음.[3]

- 이는 1916년 레닌이 '자본주의의 최신단계를 제국주의'라 비판한 『제국주의론』과 1918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등장 보다 더 일찍 발생한 사건이었음. 이 시기 서유럽의 사회주의자들(실제로는 레닌주의 보다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웠음)은 자본주의 경제가 자국의 노동력만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착취를 일삼는 것을 비판하였음. 그리고 억압을 받고 있었던 피식민지의 주민들의 고통에 감응하였음.

2) Guy Vanthemsche, *Belgium and the Congo 1885-19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39-40.

3) 아담 호크쉴드, 이종인 역. 『레오폴드 왕의 유령』 (서울: 무우수 2003), pp.354-355.

■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 사회주의자와 피식민지들의 부분적인 연대는 베트남에서도 발견됨.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제도적 차원에서 식민지 인도차이나에 보다 큰 족적을 남겼음.**

- 식민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사상, 문예, 결사의 자유와 같은 근대적 요소들은 1936년 프랑스의 인민전선의 등장과 함께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당시 프랑스에서는 급진당, 사회당, 공산당이 연합하여 '인민전선'을 형성하였음. 인민전선 통치시기 프랑스 정치체제를 정확히 특정한 유형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움. 다만 이들 지도부가 코민테른(사실상 소련)의 지시를 받고 이들과 제휴하고 있었으며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의 프랑스 정치체제는 스탈린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었음.[4)]

- 그럼에도 인민전선이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 식민지 정책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음. 특히 사회당 출신의 총리인 레옹 불룸(Leon Blum, 1872-1950)은 비인간적인 식민지 운영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법률가이자 사회주의자인 마리우스 모테(Marius Moutet, 1876-1968)를 식민성 장관에 임명하였음. 세계 2차 대전 후에 모테는 베트남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음. 모테의 임명에 따라 많은 식민지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였음.[5)] 예컨대 정치범으로 억류된 공산당계 인사들이 석방되기도 하였으며, 식민지 주민들의 보편적 시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인도차이나 의회 구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음.

- 또한 가시적인 식민지의 사회적 변화로는 사회주의와 혁명에 관한 서적들이 판매가 허용된 점을 들 수 있음. 이처럼 프랑스의 식민지배는 여전히 비민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본국 정치체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인해 그 탄압 정도가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식민통치 제도의 부분적인 변화도 발견됨. 예컨대 인민전선이 통치하던 1936년 하루 8시간 노동, 직업에 따라 주 5-6일 근무, 휴일 증대, 노동조합승인을 허가한 새로운 식민지 노동법이 제정되었음. 하지만 보수적인 식민지 총독부는 본국의 의회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때문에 식민지 실정과 동떨어진 새로운 법안을 실행하는 것에 반대하였음. 총독부의 이러한 완고한 태도는 당시 식민정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

4) 코민테른은 목표는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라 최대한 프랑스를 안정화 시키고 나치 독일과 대립시켜 궁극적으로 소련의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삼권분립의 원리는 고수되고 있었으며, 자유로운 시장경제도 운영되고 있었음 특히 공산당이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도 중요한 특징임. 또한 인민전선 지도부는 사회의 혼란을 촉발할 수 있는 대규모 봉기와 파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이 때문에 프랑스의 좌파들은 인민전선이 자본주의를 끝장낼 만큼 충분히 혁명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하였음.

5) 실제로 마리우스 모테는 '박애주의적인 식민화(Colonisation Altruiste)'라는 형용모순적인 주장을 하였음. 식민지 정책이 식민모국의 부의 창출과 식민지 상류층의 주머니만 채우는 작업에 몰두해서는 안되며, 식민지 일반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당시로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였음. 하지만 이것은 쥘 페리(Juel Ferry)의 과거발언의 재탕이었으며 원론적인 입장에 불과하며 모테의 주장은 구체적인 식민정책으로 실시되지 못했음. 그럼에도 식민정책은 과거에 비해 분명 완화되었음. Panivong Norindr, "The Popular Front's Colonial Policies in Indochina: Reassessing the Popular Front's 'Colonisation Altruiste" in Tony Chafer and Amanda Sackur ed. F*rench Colonial Empire and the Popular Front: Hope and Disillusion* (London: Mcmillan 1999), p. 231.

으면서 물질적인 혜택을 누렸으며, 프랑스의 협력주의 식민통치에 부분적으로라도 수긍하였던 철도노동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반제국주의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음.[6]

- 프랑스에서 인민전선이 집권한 상황에서 당시 인도차이나 공산당 역시 혁명 전략을 수정하였음. 당시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프랑스 제국주의를 타도하거나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를 해체하자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반동적인 식민주의자와 파시스트를 제거하고 평화를 세우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의하였음.[7] 당시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과 사회주의 계열의 혁명가들은 프랑스 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어쩌면 진정으로 피억압자들의 초국가적인 연대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 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식민본국에서 인민전선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들의 희망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전선의 통치는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었음. 1980년 베트남 공산당 창립 50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출판물에 따르면 이 3년은 법적인 활동과 비합법적인 지하활동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었던 매우 예외적인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음. 이 기간 동안 당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었으며, 남부에서도 조직의 세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인민전선이 무너진 후 식민정권의 탄압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음.[8] 이처럼 프랑스 본국의 정권교체는 분명 의미 있고 베트남 주민들에게 호의적인 변화는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체제 자체를 종식시키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음.

- **일본 식민지 조선:** 이 부분에서 식민지 조선의 독립 운동가들이 사회주의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복잡하고 논쟁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음. 다만 식민제국의 성원이었으며,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1907-1997)라는 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음.

  - 이소가야 스에지는 식민지 조선으로 넘어와서 활동하였지만, 이곳에서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천황제 반대운동에 몰두하였음. 그는 1932년 '제 2차 태평양 노동조합 사건'으로 서울에서 체포되어 9년 형을 받았음. 역설적으로 이소가야 스에지는 조선인 형사에 의하여 체포당하였음.

6) David W. Del Testa "Workers, Culture and the Railroads in French Colonial Indochina, 1905-1936" *French Colonial History*, Volume 2 (2002), p.191.

7) Communist Party of Vietnam, *50 years of activitie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0), p.50.

8) 앞의 책, p.56

- 그는 1941년 출소하여 함흥에서 공장 노동자로 살았음. 일제의 패망 이후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곳의 일본인 노동자들과 함께 북한지역의 일본인 공장들을 수리 및 운영하였음. 사회주의 운동 경력 덕분에 그는 해방공간에서 일본인들과 소련 및 북측 인사들을 가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특히 그는 일본인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흥남비료공장을 수리 및 유지하였으며, 이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삼아 이들의 본국 귀환을 모색하였음.[9)]

- 이소가야 스에지가 상상하고 그렸던 사회주의 체제가 억압적인 스탈린 체제였었지는 불분명함. 더욱이 현재의 북한과 같은 체제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사료 됨. 오히려 당시 일본과 동북아의 억압적인 질서 속에서의 '휴머니즘'정신이 사회주의 이상과 부분적으로 공명하였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정리하자면 사회주의 운동과 탈식민운동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였음. 또한 초국가적인 보편성도 부분적으로 존재하였음.

2 전지구적 냉전과 인종주의: 두 보이스와 파농의 변화를 중심으로

■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1945년은 해방을 달성한 해이며 동시에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해임. 중국 역시 국공내전이 마무리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식민주의가 종식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음. 하지만 이 시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식민주의는 지속되고 있었음.

- 프랑스는 비시정부 시절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에게 통치권을 빼앗겼던 인도차이나 식민지를 재접수하기 위하여 1946년 대대적으로 침공하였음. 프랑스는 알제리의 독립을 불허하였음. 또한 이 시기 2차대전 당시 히틀러를 막기 위해 형성된 '이상한 동맹 (The Strange Alliance: 제국주의 영국, 자본주의 미국, 공산주의 소련 사이의 동맹)'이 종식되고 냉전이 본격화되었음. 냉전은 단순하게 양 진영의 대외정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의 사회, 문화, 개인의 삶의 양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국에서 자유주의적인 사회 움직임을 종식시켰으며, 매카시즘을 태동시켰으며 보다 대결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하였음.[10)]

9) 이소가야 스에지, 김계일 역.『우리 청춘의 조선: 일제하 노동운동의 기록』(서울: 사계절 1988). 변은진,『자유와 평화를 꿈꾼 '한반도인'이소가야 스에지』(서울: 아연출판부 2018) 참조.

10) Masuda Hajimu,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참조. 비미활동위원회와 관련된 논의는 정병준 "1950년대 재미한인『독립』그룹의 非美활동조사위원회 청문회 소환과 추방,"『이화사학연구』Vol. 2014, No. 48 (2014) 참조.

- 동시에 자본주의 열강들은 식민지를 온전하게 포기하려 하지 않았음. 미국은 민족운동이 친공산 정권의 수립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유럽 열강을 지원하였음. 특히 냉전 시기 사회주의 사상은 인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으로 여겨졌음. 냉전구조 속에서 민족주의, 반제운동은 사회주의 사상을 점유하면서 식민주의와 대립하기 시작하였음.

■ 정신과 의사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1925-1961), 미국 최초의 흑인 박사학위 수여자인 윌리엄 두 보이스(W.E.B Du Bois, 1868-1963)는 학술적인 저술활동과 사회운동을 통해 인종문제해결을 위해 분투한 위대한 인물로 간주 됨. 영미권에는 주로 두 학자의 전반기 저작 가령 파농의 『검은피부 하얀가면』과 두 보이스의 『흑인의 영혼』이 인종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고전적인 저작으로 칭송받고 있음.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말년에 사회주의자가 되었음. 이 두 지식인의 변모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 탈식민운동과 냉전 및 사회주의 관계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1) 두 보이스: 체제 내의 개혁가에서 사회주의 혁명가로의 전환

■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흑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지식인이자 흑인 집단의 지도자였던 두 보이스는 전후 미국 사회와 세계의 정세를 심각하게 바라보았음.**

- 1903년 두 보이스는 “재능있는 10%(Talented Tenth)”라는 글에서, 일단 재능있는 흑인의 10%를 교육하고 이를 토대로 흑인의 정치사회적 시민권을 얻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것을 주창하였음. 이는 단순한 직업교육만을 강조하였던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지도자 부커 T 워싱턴(Booker T Washington, 1856-1915)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임.

- 이처럼 두 보이스가 흑인‘능력주의’를 강조하였던 까닭은 링컨의 노예 해방과 연방정부 Freedmen’s bureau의 정책, 진보적인 백인들의 헌신 등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었음. 두 보이스는 체제 내에서 흑인의 위치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음.[11]

- 또한 두 보이스는 베를린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하여 학습하고 미국과는 다른 분위기의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목도하였음. 사회주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슬로건을 지니고 있었으며, 식민주의에 비판적인 지식인들도 많았음. 하지만 당시 두 보이스에게 사회주의는 그다지 매력적인 대안은 아니었음. 왜냐하면 혁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급’은 일상에서 거칠고 인종차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던 까닭임.

11) 과도한 일반화일 수도 있지만 현재 미국의 학계에서는 초기와 중기의 저작들을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이 시기 그의 글과 입장은 미국 내의 인종주의적인 면모를 고발하면서도, 이를 급진적으로 혁파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냉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두 보이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였음. 당시 미국 내부적으로는 매카시즘의 태동 및 비미활동위원회의 억압적인 행태를 목도 하였으며 동시에 시장의 파괴적인 면모, 일부 백인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정책에 대한 한계를 느꼈음.**

- 특히 두 보이스는 투표권도 없는 흑인의 암울한 처지가 미국 의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었음. 가령 1957년에는 아칸소 주에서 리틀록 사건 (Little Rock Crsis)이 발생하였음. 잘 알려지다시피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부색을 이유로 학생들의 교육을 분리하는 것이 불법화되었음.

- 이에 우수한 흑인 학생들이 백인마을의 공립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이에 반대한 백인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연방군이 투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결과적으로 흑인 학생들의 입학이 이루어져서 역사의 큰 진보를 이루었으나 그 가운데서 상당한 파열음이 발생하였음. 흥미로운 점은 1959년 흑인들과 백인의 분리교육을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하였는데 이때에 등장한 슬로건이 "Race Mixing is Communism"이었음.

- 이 시기에 일부 진보적인 판결들과 움직임이 있었지만, 백인의 지배를 해체하는 것은 사실상 상상할 수도 없었음. 또한 이 시기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보이스는 미국을 벗어나 아시아의 국가들과 연계하여 기존의 인종주의를 해체하고자 하였음.**

- 실제로 그는 냉전 시기 이전부터 범-아프리카주의를 강조하였음. 또한 인도의 간디와 교류하였으며, 중국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희망하였음. 물론 그가 지니고 있었던 아시아에 대한 지식은 백인의 편견과 선입견이 담긴 다소 부정확한 면모가 많았지만, 그가 아시아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었음.

-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개최된 반둥회의는 두 보이스에게 범세계적인 유색인종의 연대를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었음. 두 보이스는 반둥회의에 참가하고자 하였지만, 국내의 흑인들이 사회주의와 좌파에 경도될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그의 출국을 허락하지 않았음.

- 하지만 두 보이스는 유색인종들의 국제적 연대를 계속하여 추진하였음. 두 보이스는 1959년 중국을 방문하여 모택동을 접견하였으며, 1962년 10월 1일 중국의 국경절에 모택동, 주은래, 류소기, 등소평과 함께 천안문 연단에 올랐던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음. 1959년 2월 22일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두 보이스는 "China and Africa"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이는 현장에 있던 수 백명의 베이징대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방송되었음. 이 연설에서 두 보이스는 중국과 아프리카가 식민지배에 신음하였던 불행한 과거를 상기시키며 양자의 연대를 강조하였음. 상하이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내고도 공원에 입장

하지 못했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머리와 눈을 가지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을 응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두 보이스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착취와 인종주의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 다른 한편으로, 두 보이스는 미국의 기업과 노동계급이 전지구적인 착취 구조 속에서 이익을 누리는 존재라고 비판하였음. 두 보이스는 "[미국의] 노동지도자들은 민간 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노동 착취에 맞서 싸우지 않으며, 오히려 착취를 대변하고 있다. 이 두 착취자 집단은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전리품의 큰 몫을 요구할때에만 분열될 뿐이다"[12]라며, 미국 노동자들이 얻는 풍요가 제 3세계 국가의 착취에서 기인한다고 여겼음. 그리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칭찬하였으며, '중국과 아프리카의 연대와 안녕을 축원하며' 연설을 마무리하였음.

- 1961년 두 보이스는 공식적으로 미국 공산당에 가입하였음. 1961년 10월 1일 두 보이스의 입당원서에는 구순을 넘긴 노학자의 사상적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남. 그는 하버드 대학교와 베를린 거주 당시 마르크스에 대하여 듣고 접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읽고 소화하지는 못했다고 고백하였음. 또한 사회주의 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였지만,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음을 이야기하였음. 하지만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였음.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운동이 실패했다는 것을. 냉전이 시작되었으며,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범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저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절대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으며, 자멸할 운명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이기심은 모두를 위한 사회적 선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13]

[그림 5] 반공주의와 인종주의의 결합 된 미국사회

[그림 6] 모택동과 두 보이스 1959년 3월

12) W.E.B. Du Bois, "China and Africa"in *W.E.B. Du Bois, on Asia: Crossing the World Color Line* (Mississippi: University of Mississippi Press 2005), p.198.

13) "Letter from W.E.B. Du Bois to Communist Party of the U.S.A"

2) 프란츠 파농: 심리학자에서 투쟁가로 변모

■ **인종주의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이자 의사였던 프란츠 파농은 두 보이스와 마찬가지로 훗날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공산주의자가 되었음.**

- 1952년 출간된 파농의 『검은피부 하얀가면』은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에게 정신적, 문화적으로 종속된 흑인들의 내면과 정신상태를 비판적으로 다루었음. 인종주의에 대한 섬세한 문체와 폭로가 주된 초기의 저술과 달리 이후의 글들은 보다 직접적인 투쟁과 행동을 주문하였음.

- 이는 1954년 11월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에서 독립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임. 이미 1945년 독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던 세티프 학살이 자행되었음. 하지만 1954년 11월 알제리 국민해방전선은 보다 조직화되고 본격적인 투쟁을 실시하였음. 특히 이 과정에서 프랑스 제국주의와 승리한 호치민과 베트남노동당의 존재는 알제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음.[14]

- 이 시기 알제리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프란츠 파농은 베트남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음.

> "디엔비엔푸에서 베트남 민중이 거둔 위대한 승리는 엄밀히 말해서 베트남만의 승리가 아니다. 1954년 7월 이후 식민지 민족이 스스로 자문해 온 문제는 이것이었다. "디엔비엔푸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까?" 식민지의 살인마들은 누구나 디엔비엔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지금 지닌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조직하고 언제 행동에 나설 것인가이다. 이렇게 폭력에 에워싸이면 이것은 식민지 민족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고, 디엔비엔푸를 알고 있는 식민주의자들의 태도도 변화시킨다."[15]

- 특히 프랑스 식민체제에 대한 비판, 서구의 이중성, 프랑스와 투쟁하였던 호치민과 베트남에 대한 예찬,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대, 콩고 공화국 총리의 루뭄바의 비극적인 죽음과 이를 공모하였던 군부 토착세력과 식민주의의 지저분한 관계, 그리고 UN 기구의 무가치함 등을 격렬하게 비판하였음.[16]

14) 베트남노동당은 19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였음. 하지만 1945년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장개석의 군대가 인도차이나 반도 북부를 장악하였고, 이를 추종하는 베트남 민족주의 계열이 국내에 남아있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형식상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하여 베트남독립동맹회(Việt Nam Độc Lập Đồng Minh Hội)에 참여하였음. 하지만 내부적인 조직과 네트워크는 유지하고 있었음. 중국의 국공내전이 모택동의 승리로 종료된 이후 보다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베트남 노동당'을 창당하였음. 현재 베트남공산당은 19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시기를 공식적으로 1차 당대회가 개최된 시점으로 여기고 있음.

15) 프란츠 파농,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서울: 그린비 2004), p.82.

- 이 시기 프랑스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 공산당'역시 알제리에서의 전쟁을 진지하게 규탄하였음. 하지만 알제리 FLN(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1956년에는 사실상 식민지의 통치를 군부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수권한법을 통과시켰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프랑스 공산당의 일부 변호사들은 FLN의 인사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 이 시기 프랑스공산당와 FLN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감동적인 연대를 형성하지는 못했으나, 프랑스 내에서 FLN에 우호적인 여론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음.[17]

- 사실 비동맹 운동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국가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었음. 그럼에도 비동맹운동이 사회주의권에 경도된 이유는 적어도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들 국가를 직접적으로 수탈한 역사가 없었던 까닭임. 또한 마르크스주의에 내재되어 있었던 세계혁명은 수탈당한 민족들의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과 높은 친화력이 있었음. 특히 위의 사례에서처럼 사회주의자들은 인종주의를 해체하고자 시도하였음. 스탈린주의를 추종하지는 않았지만, 마르크스주의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던 노동당의 애틀리 수상은 인도의 독립을 수용하고 지지하였음.[18] 이처럼 피식민국가들이 자본주의 식민주의 세력들과 대결할 당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권으로부터 얻었던 물질적 혹은 정치적 지원은 일정 수준 도움이 되었음.

  ※ **파농과 두 보이스가 사회주의자로 변모한 까닭은 사회주의 자체의 비전과 매력 때문이기보다는 프랑스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여전히 특정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을 지속한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당시 사회주의 이념은 인간의 해방과 소외의 해소라는 보편적 원칙 하에 인종문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대안적인 사상이었음 또한 분명함.**

16) 상기한 내용은 Frantz Fanon, *Toward the African Revolution* (New York: Grove Press 1967)에 서술되어 있음.

17) 노서경,『알제리 전쟁 1954-1962 생각하는 사람들의 식민지 항쟁』(서울: 문학동네 2017), pp.270-277.

18) 물론 이 시기 인도국민군이 조직되어 있었던 것이 애틀리 정부의 독립선언을 이끌어낸 현실적인 힘이라는 지적도 존재함. 토니 클리프, 도니 글럭스틴, 찰리 킴버,『영국 노동당의 역사: 창당부터 코빈의 부상과 좌절까지』(서울: 책갈피 2020), pp.393-395.

「 Ⅲ 」

사회주의 - 탈식민 중견국가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대 형성

III 사회주의-탈식민 중견국가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대 형성

1 사회주의-탈식민 중견국가

■ 중견국가(Middle Power)는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임. 이 용어가 명시적으로 지칭하듯, 이들 국가는 분명 강대국은 아니며 그렇다고 평균적인 국가도 아님.

- 국제정치학자 김치욱의 주장처럼 중견국가는 전체 국가들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가 아니며, 중상에 위치한 국가에 가까움. 그는 구체적으로 보다 정확한 논의와 분석을 위해서 강대국, 중견국가, 중소국, 약소국으로 분류 체계를 제안. 본고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류에 동의함.[19]

-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위험은 존재하지만, 중견국가는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 일정수준의 정치, 경제적 성취, 체제의 정당성과 연성권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일정 수준의 기여를 보이는 국가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재 국제무대에서 중견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경우에 따라 강대국인 미국이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복지'를 확충한 국가들이 주로 언급됨. 반면 중견국가를 순수한 경제규모와 인구를 중심으로 할 경우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포함될 수도 있음. 또한 분석의 단위를 특정 지역으로 삼을 경우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싱가포르도 중견국가에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중견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누리는 일종의 '지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지위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국가의 역량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 역량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승인받는 것임.[20]

- 이처럼 중견국가의 개념과 적용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의가 필요함. 하지만 중견국가라는 개념을 부분적으로 재정의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현상에 적용할 수 있음. 사회주의 국가 북한은 프로레타리아트 국제주의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되, 자신들이 성취한 경제적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탈식민국가들 사이에서 '중견국가(Middle Power)'의 지위와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19)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49(1) (2009), p.23.

20) Moch Faisal Karim, "Middle power, status-seeking and role conceptions: the cases of Indonesia and South Korea,"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2(4) (2018), p.350.

■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프리카 국가와의 연대와 지원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영역에서 북한의 위신을 상승시켰음.**

- 사실 북한의 산업화 수준과 발전 정도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 결코 미치지 못하였음. 하지만 산업화 경험이 일천한 신생독립국에게는 분명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

- 이는 마치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라는 슬로건이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세대 및 많은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과 유사함.

-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국과 최전선에서 대척하는 '반제투쟁' 선봉장의 이미지를 선전하였음. 이를 통해 확보한 국제적 지지는 북한의 국내정치에서 김일성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사용되었음. 또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은 아프리카 및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2 아프리카의 발전모델로서의 '자립적 민족경제'

■ 2025년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북한의 산업화와 천리마 운동은 지속적이지 못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함. 하지만 북한이 달성한 산업화는 분명 이례적인 사건이었음. 사실 국내의 연구들도 북한 경제의 하락과 침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잘 논의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북한의 경제성장 모델의 함의와 특징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이 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제 3세계 국가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21]

1) 소련과 중국의 소극적인 지원 속에서 추진된 산업화

■ **천리마 운동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발전은 소련과 중국의 부분적인 지원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

- 북한의 공간문헌 가운데 하나인『김일성 저작집』에서는 한국전쟁 막바지 무렵인 1953년 6월 김일성은 정전 이후의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해 짤막하게 언급하였음. 여기서 그는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복구해야하며 특히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의 조속한 복구와 조선업을 발전시킬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음.[22] 이 사료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김일성 일파는 상당히 이른 시점에 이미 중공업중심 노선을 계획했다고 할 수 있음.

21) 비동맹 국가의 경우 이념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경도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제로 근대국가 건설을 착수할 경우에는 특정 유형의 제도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음. 특히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 착취를 당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사회주의적인 북한의 방식은 분명 흥미로운 것이었음.

22) 김일성, "전후경제복구건설방향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3년 6월 5일" 김일성,『김일성저작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506-508. 위의 글에서는 정전이후의 계획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등장하며 전반적인 내용은 2달 후인 당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조선로동당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음. 비록 내부의 갈등은 있었지만 1953년 8월을 기점으로 중공업화와 농업집단화를 골자로 하는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이 추진되었음. 학계는 이 회의에서 중공업화와 기계설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농업협동화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내고 있음.

- 당시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복구를 지원하였으며, 북한 측도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였음.

"3개년 계획 기간에 쏘련 정부로부터 10억 루블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로부터의 8만억 원(구 인민폐)을 비롯하여 형제적 국가들로부터의 대외 원조 수입은 년평균 200억 원 이상에 달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부분이 공업과 농촌 경리의 복구건설에 돌려졌다. 그리하여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풍 발전소, 흥남 비료공장, 김책 제철소, 강선 제강소, 북중 기계 공장, 승호리 세멘트 공장, 남포 유리 공장 등을 비롯하여 수 많은 중공업 및 경공업 기업소들이 선진 기술에 기초하여 복구되였으며, 또한 희천 공작 기계 공장, 구성 관산 기계 공장, 대성 벽돌 공장, 평양 방직 공장, 평양 목재 용기 공장, 룡성 육류 가공 공장등을 비롯하여 수 많은 중공업 및 경공업 기업소들이 신설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관개 시설 공사에 필요한 타빈, 폼프, 원동기, 변압기, 그리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이 농촌 경리에 공급되었다."[23]

■ **하지만 전후복구 시기부터 중공업 주도의 발전노선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었음.**

- 헝가리 외교문서를 인용한 김보미의 연구에 따르면 소련은 10억루블의 원조 가운데 일부를 소비재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중공업 장비를 요구하였음. 헝가리 정부 역시 소비재 생산을 위한 경공업 시설들을 원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하면서 중공업 시설을 요구하였다고 함.[24]

- 북한 지도부는 소련과 중국의 불충분한 지원에 다소 아쉬워하였음. 하지만 북한은 전후 복구 이상의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요구할 명분도 없었음. 또한 당시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산업화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음.

- 소련이 북한의 산업화에 찬성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음. **첫째, 부르주아 자본주의 단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들에게 급작스러운 사회주의 중공업화 정책은 무리라고 생각하였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성숙한 이후에

23) 리명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에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 연구소『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론문집)』(평양: 과학원출판사 1958), pp. 104-105.

24) 김보미,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1953~1955)"『아세아연구』 56(4) (2013), pp. 321.

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는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여겼음. 자본주의 변방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였으며 마르크스의 논지가 새롭게 갱신되었지만, 소련의 지도부에게는 중국의 특정지역을 제외한 아시아의 산업화는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

- **둘째, 무리한 산업화 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정치 사회적 결과를 우려하였음.** 스탈린적인 중공업화 발전노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자원이 산업부분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민생활의 퇴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음. 비슷한 시기 동독의 중공업화 노선은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켰음. 소련은 1952년부터 동독이 실시한 무리한 중공업 우선 정책과 농업 협동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음. 소련지도부는 동독의 중공업 노선을 수정하고 소비재와 경공업 발전을 고려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하였음. 하지만 동독 지도부는 이 정책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탈주자가 발생하였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1953년 6월 대규모 반체제 봉기가 발생하였음. 베를린 봉기를 소련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동구권에서 소련의 권위가 흔들렸음. 소련에서도 1953년 8월 말렌코프의 '신노선'의 등장원인은 국내적으로는 세계 2차 대전이후 허리띠를 졸라맸던 지친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야 했기 때문임. 북한의 무리한 지원 요구가 소련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음.

■ **당시에는 농업국가였지만 또 다른 사회주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도 소련과 유사한 생각과 입장을 지니고 있었음.**

- 1960년 12월 5일 주은래 총리는 북베트남 경제사절단 예방을 받고 중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음. 주은래 총리는 북베트남의 현 상황에서는 산업화가 아니라 농업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함. 산업화는 그 이후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주은래는 북베트남 사절단이 방문한 상하이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발전이 이룩한 것이었다고 언급하였음. 동시에 중국의 문제점도 솔직하게 이야기 함.[25]

- 중국의 경우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농촌인구의 약 10%가 도시로 유입되었는데, 이것이 중국경제의 불균형을 발생시킨 요인이었다고 보았음. 중국의 농업이 기계화를 이룩하지도 못했으며, 생산성이 낮은 상황 속에서의 인구유출은 노동력 상실로 이어졌음. 동시에 도시에 유입된 인구들을 기업과 국가가 수용하고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였음. 주은래 총리는 6명의 베트남 사절단을 11명 맞이하러 가는 것이 비효율적인 노동의 한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중국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임. 비록 당시에는 노동력 손실만을 지적하였지만, 사실 이는 사회주의 제도의 보편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25) "December 05, 1960 Record of Conversation from Premier Zhou Enlai's Reception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Economics and Trade Delegation led by Vice Premier Nguyen Duy Trinh"

■ **여하튼 신생 독립국의 산업화는 그것이 자본주의 방식이든 혹은 사회주의 방식이든 요원한 일이었음.**

- 사회주의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착취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산업화를 위한 직접적인 도움은 주기 어려웠음.

- 식민 지배를 당하였던 시점 압제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술적 우위와 풍요에 대한 선망, 그리고 힘이 없었기에 당했어야만 하는 굴욕은 신생독립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음.

-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북한은 자국의 구조적 한계와 주변국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일정수준의 성공을 거두었음. 이는 신생독립국에게 분명 매력적인 사항이었음.

2)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달성한 산업화

■ **김일성은 앞서 언급한 제약 속에서 대중운동을 통해서 중공업화를 계속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김일성은 1956년 12월 13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포부를 밝혔음.**

>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중공업을 좀 죽이자거니 살리자거니 하는 론의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설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전반적인민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할수 없으며 인민생활도 높일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객관적 요구입니다."[26]

- 즉 외부의 원조를 기대하지 말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내부 예비물자를 동원하여 산업화를 치진할 것을 지시하였음.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발전 노선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음.

■ **외포적 방법으로 달성한 산업화**

- 경제학자 코르나이는 경제 성장의 방법으로 '외포적 방법(Extensive Method)'과 '내포적 방 법(Intensive Method)'을 제시하였음. 외포적 방법이란 고용증가, 근로시간 연장, 경작면적 증가, 광물채취 증가 등 동원을 통한 성장을 지칭함. 반면 내포적 방법으로는 노동강도 증가, 기술진보, 조직개선 등을 제시하였음.[27]

26)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6년 12월 13일" 『김일성저작집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05.

27)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92), pp. 180-184.

-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로 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룩하는 '내포적 방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고 주장함. 하지만 코르나이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이념형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도 내포적 방법과 혁신이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음. 다만 후발산업국가인 사회주의에서는 외포적 방법을 통한 성장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추격하는 모습이 보다 선명하게 발견됨.

-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 보자면 '외포적 방법'을 통한 경제성장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님. 국가가 자본을 조달하고 노동력을 동원해야만 함. 이는 근대적인 관료제, 법치, 치안통제가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해야만 가능한 것임. 소련과 동유럽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수립이전에 일정 수준의 산업화를 경험하였으며 근대적인 법률, 행정 제도가 존재하였음. 하지만 제 3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음. 풍부한 노동력, 거대한 자원을 통해 특정 거점에만 산업화를 추진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공산당이 집권하였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리아, 아프가니스탄, 짐바브웨, 예멘, 콩고 등지에서는 '외포적 방법'을 통해서도 산업화를 실현시키지 못했음. 하지만 북한은 '외포적 방법'으로 산업화를 이룩하였음.[28]

■ 식민지의 유산과 근대적 규율성

- 역설적이게도 일제 식민지의 유무형적 유산은 북한의 산업화의 토대 구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음.

- 한국전쟁 이전시기 북한이 일제의 시설을 얼마나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음. 다만 일본이 남겨두었던 산업시설들을 소련의 지원과 국내의 노동자들을 통하여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 됨. 북한 측도 일제의 식민통치를 혹독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유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않았음.

- 가령 북한의 박영근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해방 전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자립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원료 략탈과 대륙 침략 준비에 필요한 공업 부문들만 발전시켰다"면서 식민지의 시기의 공업기여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임. 하지만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는 "비록 식민지적이나마 일정한 정도의 재취 공업 및 야금 공업들의 중공업적 토대를 보유하고 있는 바 이는 중공업 우선적 장성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29]

- 산업화 시설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수립된 근대적인 노동규율은 북한의 공업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 핵심노동자와 숙련노동자들은 단순하게 기술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

28) 박영근, "우리나라 공업 발전에서의 새로운 단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 연구소『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론문집)』(평양: 과학원출판사 1958), p.137.

29) 앞의 글, p.145.

- 이들은 일본의 중공업 시설에서 착취를 당하였지만 근대적이며 군대와 같은 규율을 몸으로 직접 익힌 집단이었음. 과거 전평에 속했거나 공장의 숙련노동자들은 이러한 규율을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안에서 재생산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전파자들이었음.[30]

- 사실 이 시기의 북한의 여러 문헌들은 공장내부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노동규율, 자원배분, 행정 미숙 등을 지적하였음. 또한 김일성이 산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른 저발전 혹은 신생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월등한 사회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음.

■ 노동동원과 사회적 반발의 제압

- 거쉔크론은 '후발주자의 이점' 가운데 하나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체제 전반에 존재할 경우, 경제발전을 위한 연대와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음.

- 북한 역시 사회주의 방식으로 국민과 물자를 동원하였지만, '토지개혁'의 성공으로 인한 정당성, 착취 없는 사회, 전후복구에 대한 의지가 사회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확립되어 있었음. 국가의 발전에 방향에 대한 '사회의 동의'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한 요인이었음.

- 소련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모한 중공업화와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한이 성장할 경우 이제 막 전쟁을 치룬 북한체제가 또 다시 흔들릴 위험성을 우려하였음. 하지만 이미 이 시기 북한에서는 동독처럼 국가에 정면으로 대립할 수 있는 조직된 사회세력은 없었음.

- 1953년 9월 18일 내각 지시 103호로 노동기준량을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며, 1954년 3월 1일 탄광, 방직, 고무, 토목, 건축, 제재, 체신, 선로, 수산 부문에 대한 노동기준량이 증가하였음. 많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기준량을 전혀 반기지 않았으며, 정부로부터 부여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태업, 청병, 무단결근 등의 행태로 저항하였음. 이 뿐만 아니라 전쟁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수립된 억압적인 노동규율은 전쟁 후에도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음.[31]

-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단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음. 1954년도 수매과정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공업화를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의 반발이 약했기 때문임. 만일 전후 복구 사업기에 대규모 노동봉기가 발생했더라면 어쩌면 김일성의 체제는 8월 종파사건 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도 존재함.

30) 1930년대 말 조선의 농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공장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근대적 공장의 집단적, 규칙적 노동에 적응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임. 강이수, "공장체제와 노동규율", 김진균, 정근식 편저『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서울: 문화과학사 1997), pp. 142.

31) 이세영, "1950년대 북한 노동자층의 형성과 의식 변화"『한국사 연구』163집 (2013), pp. 431-432.

■ 기술발전과 초기산업화

- 천리마 운동 시기에 실질적인 기술혁신작업도 이루어졌음. 예를 들어, 북한은 압연기의 공칭능력 6만 톤의 불과하였기 때문에 최대 7만 2천톤의 강재 생산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였음. 가령 분괴압연기의 베어링 교체작업의 사전준비를 잘하면 기존의 24시간 교체시설은 16시간으로 최대 12시간으로 줄이는게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기존의 보수기일을 100일에서 75일로 줄어들어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했다고 주장함.[32] 즉 천리마 운동은 단순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사상동원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기술혁신을 도모하여 이루었던 성과라고 할 수 있음.[33]

- 1961년 북한의 비날론 공장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여기에는 조선인 최초로 교토제국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되었고,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리승기 박사의 기여가 있었음. 그는 10명의 연구진들과 월북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학자로 활동하였음. 그는 김일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공장건립에 성공하였음. 이는 제 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경제 부분에서 기계화, 자동화, 화학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음.[34]

- 사실 북한이 사회주의 방식으로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시기 북한 산업화가 전근대에서 근대 초입으로 넘어가는 '초기 산업화'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 이 시기에 국가와 당의 중앙집권화 즉 국가계획위원회를 위시로하는 계획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음.

- 하지만 기술이 정교해지고, 산업공정이 복잡해지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심화됨. 1950-1960년대 소련과 동독에서는 산업화가 한 층 더 진행되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모순이 보다 심각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초기 산업화 단계에 있었던 북한에서는 아직 동유럽 국가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음. 따라서 표면적으로 북한의 발전모델이 타당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었음.

32) 강호제, "북한의 기술혁신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북한 과학원의 현지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p. 91-99.

33) 물론 이러한 동원을 통한 발전이 손쉽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으며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하였다. 기본적으로 지배인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였음. 김일성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이 로동자들의 창발성을 억누르고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방해하며 도와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보수주의적 경향입니다. 반대로 로동자들이 기술자, 과학자들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으며 그들과 협력하려 하지 않는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는 경향입니다"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지금 건설속도가 빠르지 못한 원인은 자재가 부족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이 건설기계를 만들어 주지 않는데 있습니다. 만약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이 콩크리트 혼합기, 기중기 같은 건설기계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면 도시와 공장지대들에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고 농촌건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기중기도 자체로 만들어 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며 기계설비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전국생산혁신자대회에서 한 연설 1958년 9월 16일" p.524. 김일성, "기계공업의 발전은 5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열쇠이다: 기계공업부문전국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7년 9월 11일" 『김일성저작집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292.

34) 김근배, "50~60년대 북한 리승기의 비날론 공업화와 주체 확립" 『역사비평』112 (2015), pp.123.

3 북한 모델의 확산과 1964년 평양 선언

■ 1960년대 이전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

- 세계 2차 대전 이후 식민주의는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있었음.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문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라고 명시해 놓았음. 당시 식민지 상태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사 노예제도가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음. 앞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주의는 식민주의에 비판적이었으며, 사회주의자들은 피식민자들과 연대를 도모하였음.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항들은 양자가 '조우(encounter)'한 시점이지 체계적인 정치적 기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음.

- 1960 년대 이전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체계적이지 않았음. 북한은 반둥회의에 관심을 보였음. 하지만 이 시기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맺고 있지 않았으며, 대내의 문제에 집중하였던 시기였음. 북한은 1957년 아프리카, 아시아, 인민단결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그 이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와 외교적 관계를 맺었음. 그리고 이 시기에는 '프로레타리아트 국제주의'원칙에 따라 공산주의 및 세계의 진보적인 인민들과의 연대를 도모하였음.[35]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했음.

- 다만 이 시기에도 이미 식민주의에 대한 폭력, 진보적 인민의 민족해방투쟁,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움직임을 지면에 소개하였음. 사회주의 권에서 통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 가령 1949-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영당국 주민을 대량학살, 1950-아프리카민주동맹의 지도자들을 석방을 요구 불란서공산당 총비서의 전문, 1950-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 1950-남아프리카련방 로동자들 공산당 비법화를 반대하여 파업, 1951-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 알제리아 공산당 비서의 론문, 1955-알제리아 공산당에 대한 불란서 정부의 비법화 조치를 반대 항의한다, 1956-알제리아 공산당에서 불란서 식민지 통치 반대 투쟁 강화를 호소, 1957-평화를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은 단결하자!, 1958-사회주의 국가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제국 간의 경제적 협조 관계의 발전 등의 글을 지면에 게재하였음.

■ 성공모델 북한

- 하지만 북한이 이룩한 경제적 발전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생 독립국에게 모범과 대안으로 간주 될 수 있었음.

35) 옥창준, "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와 '평양 선언'" 『통일과 평화』12(1) (2020), pp.11-13.

- 예컨대 베트남에서는 1960년 제 3차 당 대회가 개최되어 제 1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1961-1965년)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음. 여기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스탈린식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대회에서는 북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세 가지 과제가 논의되었다. 그것은 1)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발전전략 2) 농업에서는 집단화를 확립시키는 것 3) 문화 영역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여 사회주의적인 인간을 형성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음.

- 베트남의 중공업화 노선 수립에는 북한 측의 조언과 경험이 영향을 끼쳤을 확률이 매우 높음. 1957년 7월 호치민은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났으며 1958년 11월 김일성은 베트남에 방문하였음. 호치민 박물관에서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호치민은 평양의 의류공장과 천리마운동의 상징인 강선제강소를 방문하였음. 소련과 중국 측이 탐탁히 여기지 않는 중공업화에 대해서 김일성은 나름의 답변을 베트남 측에 한 것으로 보임.

-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베트남과 같은 농업국가에서는 자본주의 혁명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생산력을 증가 시킨 후에야 비로소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음.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레 주언 서기장은 새로운 시대에는 기존의 전략이 수정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음.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소련의 물질적인 지원과 지도를 받는다면 베트남은 정통적 마르크스주의 입장과는 달리 자본주의적인 생산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적인 산업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면서도 산업화는 베트남 주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며,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36] 종합하자면 사회주의 선진 산업국가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 농업사회인 베트남이 산업화로의 단번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당 지도부의 입장이었음. 그리고 중공업화의 파급효과가 다른 경제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음. 이는 북한의 노선과 매우 유사함.

- 북한의 발전모델이 농업과 중공업화 사이에서 고민하였던 사회주의 베트남에게는 실용적인 정책 방향을 알려주었다면, 아프리카 및 **신생 독립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구체적인 정책과 모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가능성과 발전 담론의 역할을 하였음.**

36) 사실상 레 주언 서기장의 의견은 주은래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e Duan, “Socialist Industrialization the common cause of the entire people” Le Duan, *On the Socialist Revolution Vol.II*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5), p.19.

[그림 7] 강선제강소를 방문한 호치민 1957년

- 가령 남미의 가이아나 출신이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활동하였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더는 월터 로드니(Walter Rodney, 1942-1980)는 사회주의가 봉건체제를 종식시키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상이며 모델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는 중국과 북한이 유럽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당시 이들이 봉건적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보았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식민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봉건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았음.

- 하지만 1950년대 이후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은만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물리친 국가로 성장하였다고 보았다.[37] 로드니는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성취와 기여를 평가하였는데, 특히 북한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 칭송하였음. 구체적으로 로드니는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8억 중국인의 이념이며, 베트남 인민을 성공적인 투쟁과 제국주의의 패배로 이끈 이데올로기입니다. 북한이 후진적이고 준봉건적이며 준식민지적인 지형에서 독립적인 산업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게 한 이데올로기이다"라고 평가하였음.[38]

- 1960년대 북한이 '비동맹운동'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적극 수교하였던 것도 자신들이 최초로 산업화와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달성한 국가라는 자부심에 근거한 것이었음.

- 실제로 북한을 방문한 제 3세계 국가들의 지도자와 경제 사절단은 북한의 경제적 성취에 큰 관심을 보였음. 특히 주은래 역시 중국을 방문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관료들에게 북한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빈번하게 하였음. 1964년 6월 주은래는 말리의 경제발전부 장관 쿠야트에게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성과'를 직접 볼 것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원조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나 자력갱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39]

37) Walter Rodeny, *How Europe Underdeveloped Africa* (Bltimore: Black Classic Press 1972), pp. 11-12

38) Walter Rodeny, *Decolonial Marxism: Essays From the Pan-African Revolution* (London: Verso 2022).

- 또한 1968년 평양을 방문한 줄리어스 니예레레는 다음과 같이 농업부문에서도 북한의 성취를 평가하였음.

"경제에서 공업부문을 지금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인민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에서 온 나에게 있어서 당신들의 성과는 커다란 관심을 끌게 합니다. 조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자력갱생의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농업에 우선적으로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존하는 자본과 로력자원을 가지고 농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에서 조성되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공업부문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공업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40]

■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한 사회주의 탈식민 중견 국가로의 도약

- 1960년대부터는 북한은 자신들이 성취한 경제발전, 반미투쟁,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성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그리고 이는 1964년 6월 총 34개국[41]이 참가한'아세아 경제 토론회'와 1964년 평양선언으로 이어짐. 평양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됨.

"자립 경제 건설은 이 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그것은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의 기형성과 락후성을 청산하고 현대과학과 기술 문화를 소유한 부강한 자주 도립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여 세계 경제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것이다."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 자본가들의 경제적 지반을 박탈하여야 한다. 그들의 **기업체를 국유화하여 전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민족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업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체의 민족과 기술 간부 대렬을 육성하여야 한다"[42]

39) 주홍, 김일산 외 역, 『중국 대외원조 60년』(서울: 푸른사상 2015), pp.172-173.

40) "김일성수상의 령도밑에 귀국에서 달성한 경탄할만한 발전에서 탄자니아 인민들은 많은 것을 배울것이다." 『로동신문』 1968년 6월 25일 1면.

41)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아, 앙골라, 카메론, 콩고, 감비아, 가나, 케냐, 르완다, 소말리아,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 말리, 모잠비크, 수단, 우간다, 잔지바르 등이 참가하였다.

42)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양선언: 자력 갱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하여"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2면.

- 또한 당시 이 선언은 사회주의 대국과 일정수준의 갈등을 감수한 주장이었음. 흐루시쵸프는 1962년 코메콘 이사회에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가입을 종용하였음. 일정 수준의 산업화를 달성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코메콘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 하지만 북한을 위시로한 신생 독립국의 경우 공업화를 포기해야 할 수 있으며, 농업에만 집중해야 할 경우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 종속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음. 이에 북한은 당시 소련 주도의 국제분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음.[43] 하지만 이는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우려를 일정 수준 반영한 입장이었음. 이를 통해 북한은 탈식민 국가들 사이에서 위신을 높일 수 있었음.

- 북한은 천리마 운동의 성과 및 북한의 모델이 나름대로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음.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적 성공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음. 강력한 지도자, 잘 조직된 당, 그리고 해방된 국가의 열정적인 인민들이 결합하면 의미 있는 경제적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여겼음. 그리고 위의 글에서 명확하게 언급된 것처럼 자본주의가 아닌 '국유화'를 통한 성장임을 밝혔음.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사실상 동의어임.

- 흥미롭게도 평양 선언은 중소분쟁의 갈등을 증폭시켰음.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시각에서는 북한이 달성한 경제적 성취는 인상적이지 못한 것이었음.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 비행을 완수하였으며, 동시에 아스완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음.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북한을 앞세워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대를 증진시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음. 이에 당 기관지인 '프라우다'를 통해서 평양 경제 토론회를 비판하였음. 이 논설문의 핵심적인 비판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었음. 또한 소련이 북한의 흥남 비료공장이 사실 자신들의 지원 덕분에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음.

- 이에 북한은 아래의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소련의 입장을 격렬한 어조로 반박하였음. 북한은 소련의 원조와 지원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충분하지 않은 원조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얻은 성과들을 강조하였음.

43) 박아름,"1962년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이탈 분석" 『역사문제연구』25(1) (2021), p.458

"이 얼마나 남을 깔보고 멸시하는 거만한 태도인가? 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하고 파렴치한 헛소리인가? 이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으며 남들은 다 무식하고 오직 자기만이 유식한 것처럼 생각하는 데 습관된 대국 배타주의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투이다."

"쏘련 인민이 우리에게 준 원조에 대하여 말한다면 조선 인민은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감사할 것이다. 전후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조선 로동당은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 인민, 자체의 자원,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개별적인 가장 발전 된 사회주의 나라≫의 원조만으로써 빈궁과 락후에서 벗날 수 있으며 또 벗어 난적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쁘라우다≫가 말하는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 나라≫가 어느 락후한 나라를 ≪원조≫하여 공짜로 먹여 살렸으며 그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해 준 실례가 있단 말인가?"[44]

- 로동신문에서 소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지만, 양국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니었음. 흐루시쵸프가 1964년 10월 실각하고, 보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입장과 가까운 브레즈네프가 집권하였음. 특히 1965년 11월 코시긴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고, 안보 이슈를 논의하면서 양국간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 여하튼 평양선언과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조를 통해 북한의 지위가 상승하였음. 또한 소련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 주었음.

■ 탈식민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강화된 김일성주의

- 대외정책 역시'주체사상'의 확립과 연동되었음. 1955년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는 단순한 개념과 전략으로 '주체'를 선포하였다면,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의 발간 이후부터 보다 체계적인 담론으로 발전하였음.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두 논의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음. 하지만 1966년을 기점으로 '주체'는 '실천 이데올리기'의 색채가 약해지며, '순수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음.

- 1968년 북한의 국가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하였음. 특히 이 시기 북한은 여전히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었음. 평양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이룩한 성취를 한반도를 넘어 제 3 세계 전반에 과시하고자 하였음. 북한은 해외에서 초청한 인사들을 통해 자신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공헌하고자 하였음.

44) "왜 평양 경제 토론회의 성과를 헐뜯으려 하는가? 제 2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대한 <쁘라우다>의 비방을 논박함" 『로동신문』1964년 9월 7일. 2024년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이 날짜의 로동신문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없음 (원본, 디지털, 마이크로필름). 이에 따라 동아일보사, 『북한외교정책기본자료집』

- 이 기간 초청된 해외의 연사들은 북한의 성과를 찬양하였다. 가령 노동신문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성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이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조선의 혁명적인민들과 만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노동신문에 등장하였음.

> “조선인민의 물질적성과들과 특히는 정신적성과들은 해방을 위하여 산과 도시에서 무장을 잡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피압박인민들에게 당신들이 **김일성원수님**의 정확한 령도 밑에 지난 20년간 시종이관 그렇게 해온것처럼 신성한 맑스-레닌주의원칙들에 충실하며, 공포를 모르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써 인류의 공동의 원쑤를 증오하고 견결히 맞서싸우며, 자기 나라 인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써 사랑하며, 진정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견지할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은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45]

- 위의 글은 베네수엘라 민족해방전선대표의 연설문을 노동신문이 부분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김일성의 영도력을 칭송하는 내용이 등장함. 이 연설 뿐만 아니라 방북한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들의 언사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발견됨. 이는 물론 의례적인 외교적 관례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한 감탄일 수 있음. 하지만 북한은 해외 지도자들의 언사들을 편집하여 내부의 주민들에게 지도자를 우상화하였음.

- 따라서 김일성은 북조선을 뛰어넘어 신생 독립국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되었음. 이는 빈곤국의 콤플랙스, 지도자와 지도부의 집단적 자아도취, 그리고 실질적인 성취의 괴상한 조합이었음.

-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김일성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적이고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 관계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음. 철학적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당시 주체사상연구소를 전세계에 설치하고자 하였던 것은 김일성주의, 탈식민, 발전담론이 그들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됨.[46]

45)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성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이 환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민족해방전선대표 엘리아쓰 마누이뜨 까메로의 연설”『로동신문』, 1967년 9월 9일 9면. 하지만 이 인물이 베네수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46) 아프리카 국가의 주체사상을 어느 수준으로 수용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함. 가령 니예레레는 그의 저서 ‘우자마’에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사회주의를 ‘마음의 태도’라고 명명하기도 하였음. 이에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각성 된 ‘인민대중’과 호응할 수는 있음.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실리적으로 북한을 대했을 가능성이 더 높음.

■ 아프리카-중국과의 관계

-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임.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만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니었음.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연대는 중국과 마오이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중국도 경제분야에서 '자력갱생 (自力更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 실제로 아프리카 정치지도자들은 방북 전후로 중국을 방문하였음. 또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과 원조량은 중국이 훨씬 더 컸음. 예컨대 중국의 탄자니아 철도건설은 1960년대 중반부터 기획되어 1970년부터 이루어졌음. 이는 중국의 UN가입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였음.

- 북한은 중국이 개척한 질서 속에서 사회주의 탈식민 중견국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특히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모델이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음. 하지만 북한은 성공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부재하였음.

- 또한 중국의 경우 일종의 사회주의 패권국가로 소련과 구분되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계혁명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예컨대 중국은 과거 모택동이 '농촌을 통한 도시 포위전략'을 제 3 세계에 적용하고자 하였음. 또한 대외원조를 위한 '8항 원칙'을 제시하였음.

- 하지만 북한은 세계혁명을 실시하거나, 개별적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음. 북한은 자신들의 아프리카와 제 3세계 지원을 방침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사실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교적 값싼 방식을 선호하였던 것에 가까웠음.

[그림 8] 황해제철소를 방문한 니예레레

김일성수상과 함께 줄리어스 케이. 니예레레대통령은 황해제철소를 참관하였다. (조선중앙일보신사 제공)

[그림 9] 탄자니아 철도를 건설하는 중국

1975年，中国援建的坦桑尼亚—赞比亚铁路完成铺轨任务。图为中、坦、赞三国工人在工地上。

■ 반미투쟁의 최전선의 혁명국가

- 한국전쟁으로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결한 북한은 강력한 반미의식을 확립하였음. 동시에 냉전 구조와 분단 구조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음. 북한은 구조적인 이유로 미국과 갈등할 수 밖에 없었음.

- 1960년대 북한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한일협정을 통한 양국의 국교정상화, 미군의 북베트남 폭격과 베트남 전쟁에 위협감을 느꼈음. 이에 더하여 중소분쟁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미국과의 대결구도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권과 대립하였던 탈식민국가들에게 상당한 지위로 작용하였음. 가령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 나포 사건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사회주의 진영과 비동맹국가들에게는 북한의 위신을 증진시켰던 사건이었음. 당시 82명의 미군이 포로로 잡히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음. 같은 시기 '구정공세'를 통해서실시하였던 베트남노동당은 세계의 이목을 북한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음.[47)]

- 사회주의 국가 및 반식민진영 국가들에게 반미투쟁 선봉 국가라는 위신은 추후북한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되었음. 1970년대 데탕트 상황 속에서 북한에게 다소 유리한 국제구조가 형성되었음. 데탕트 분위기, 지지부진한 남북대화, 미군의 베트남 철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음.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의 반대속에서도 UN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1975년 유엔총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내용을 담은'한국문제 3390B'가 통과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전략은 1964년 북한이 통일을 위한 '3대 혁명역량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당시 김일성은 북반구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남조선의 혁명역량 강화, 그리고 유리한 국제질서 조성을 위한 혁명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음.

  ※ **정리하자면 사회주의 운동은 제국주의의 수탈을 반대하며 탈식민운동과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북한은 자국의 식민지 역사, 자립적 민족경제, 반미투쟁의 선봉장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주의 탈식민 중견국가의 지위를 구축하였음. 그리고 이는 북한에서 김일성주의를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었음.**

47) 도미엔 (2022), pp. 197-199.

「 IV 」

북한과 아프리카의 연대: 나미비아를 중심으로

IV 북한과 아프리카의 연대: 나미비아를 중심으로

[표 2] 나미비아 일반 사항

국명	• 나미비아공화국(RepublicofNamibia)
수도	• 빈트훅(Windhoek,37만명)
인구	• 269만명 2023(IMF)
면적	• 82만 4269㎢ (한반도 약3.7배)
언어	• 영어, 아프리칸스어, 독일어, 오시밤보어
종교	• 기독교(80-90%),토착종교(10-20%)
민족	• 오밤보(49.5%), 카방고(9.2%), 헤레로(7%), 백인(6.4%), 혼혈(4.1%)등
기후	• 아열대,사막성건조기후
건국	• 1990.3.21(남아공으로부터독립)
정부 형태 및 의회 구성	• 대통령중심제(직선제,임기5년) • 의회구성: 양원제(상원:42명 / 하원104명)
GDP	• 126억 5000만$ ('2023, IMF)
1인당 GDP	• 4790$ ('2023, IMF)
GINI Index	• 35.8('2019, World Economics)
교역	• 158.2억불 • 수출액:63억4000만$ • 수입액:94억8000만$ • 수출품목:다이아몬드,비철금속 • 수입품목:식료품,석유제품,기계류,화학약품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기반 저자 작성

■ 나미비아 해방운동과 독립의 역사

- 나미비아의 독립 과정은 19세기 말 독일 식민지배부터 시작된 긴 투쟁의 역사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배와 인종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에 저항하며 1966년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 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를 조직하여 해방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약 23년간의 무장 투쟁 끝에 나미비아는 1990년 독립을 달성함.[48]

48) Reinhart Kössler, "Images of history and the nation: Namibia and Zimbabwe compared," *South African Historical Journal 62.1* (2010), pp. 31-33.

[그림 10] 인터뷰 4

○ 식민지배와 초기 저항운동

- 나미비아는 1884년 독일 제국의 식민지(1884~1915)로 편입되어 독일령 남서아프리카(German South West Africa)가 되었음. 독일은 원주민 부족들에게 가혹한 식민 정책을 실시했으며, 1904년부터 1908년까지 헤레로(Herero)민족의 약 80%, 나마(Nama)민족의 약 60%가 학살되었음.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남아프리카연방(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독일을 격퇴하고 나미비아를 점령함. 1920년부터 남아프리카연방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위임통치령으로 나미비아를 관리함. 1948년 남아프리카연방에서 인종차별정책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나미비아에서도 흑인 차별이 강화됨. 남아공은 1966년 국제연합(UN)의 나미비아 위임통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미비아를 불법적으로 지배함.

○ 독립운동과 무장투쟁 (1966~1988)

- 1960년, 나미비아의 대표적 독립운동 조직인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SWAPO)가 결성됨. 1966년 SWAPO의 무장 조직인 PLAN(People's Liberation Army of Namibia, 나미비아인민해방군)이 남아공과의 무장 투쟁을 개시하면서 나미비아 독립전쟁(1966~1988)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SWAPO는 소련, 쿠바, 북한, 앙골라 등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며, 북한은 나미비아의 군사 훈련을 지원함.

- 1975년 이웃 국가인 앙골라가 독립하면서 나미비아의 SWAPO는 앙골라를 거점으로 삼아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함. 이에 대응해 남아공은 나미비아 내 친남아공 정권을 강화하고, SWAPO의 거점을 폭격하며 강경하게 탄압함. 1980년대에는 쿠바군과 남아공군이 앙골라에서 전투를 벌이는 등 나미비아 독립운동이 남부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됨.

○ 독립협상과 건국 (1988~1990)

- 1988년 미국, 소련, 쿠바, 남아공, 앙골라 등이 협상을 진행하여 남아공이 나미비아에서 철수하는 것에 합의함. 1989년 유엔이 주도하는 유엔 나미비아 독립이행그룹(UNTAG)이 파견되어 나미비아의 독립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1989년 나미비아 최초의 민주선거에서 SWAPO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독립 정부 수립이 됨. 1990년 3월 21일, 나미비아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였고, SWAPO의 지도자 샘 누조마(Sam Nujoma, 1929-2025)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함. 남아공은 독립을 인정했으며, 마지막까지 점령하고 있던 월비스베이(Walvis Bay) 항구도 1994년 나미비아에 반환됨.

○ 독립이후의 나미비아

- 나미비아 독립 이후 SWAPO가 집권당이 되어 현재까지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 2004년, 독일 정부는 식민지배 시절 헤레로족과 나마족에 대한 학살을 공식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 중임.[49] 독립 이후 나미비아는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면서도 SWAPO가 장기 집권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 및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50]

- 북한은 나미비아 독립 전쟁 기간 동안 SWAPO에 군사 훈련과 무기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독립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음. 특히 북한은 만수대해외개발회사를 통해 나미비아의 대통령궁, 영웅 묘지, 군사 훈련 시설 등을 건설하였음. 그러나 2017년,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나미비아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51]

■ 아프리카 해방운동과 역사

- 학문에서 아프리카 역사(African History)가 탄생한 시기는 1945년부터 1970년대 사이로 아프리카 독립의 해라고 불리는 시기와 일치함.[52] 비록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초기 문헌은 17세기초부터 존재하였지만,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인들은 구술 역사(Oral History)에 의존해 왔으며, 식민지 행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서구는 아프리카가 시대를 초월한 장소이자 역사가 없는 지역으로 파악함.[53]

49) 2021년 독일정부는 나미비아에서 저지른 집단학살에 대해 사과하고 30년간 개발지원금으로 11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조기원, “독일, 1조5천억원으로 학살 사과…나미비아 “우리 존재에 대한 모욕,”” 『한겨레』 (2021년 06월 02일), at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997598.html.

5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and Namibia,” (n.d.), at https://www.fmprc.gov.cn/mfa_eng/gjhdq_665435/2913_665441/3049_664124/.

51) Ju-min Park and Michael Perry, “Namibia cuts ties with North Korea state firms: South Korea govt, media,” Reuters (2016년 07월 01일), at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namibia-cuts-ties-with-north-korea-state-firms-south-korea-govt-media-idUSKCN0ZH3XU/.

52) Stephen Ellis, “Africa's wars of liberation: Some historiographical reflects,” in Robert Buijtenhuijs, Piet Konings, Wim M. J. van Binsbergen, Gerti Hesseling (eds), *Hommes et sociétés; Trajectoires de Libération en Afrique Contemporaine: hommage à Robert Buijtenhuijs* (Paris: Karthala; Leyde: Afrika-Studiecentrum 2000), pp.73.

53) 1948년 런던대학교(SOAS)에서 대학 최초로 아프리카 역사학을 신설함.

- 오늘날 아프리카 연구가 시작된 1960년대 이래로 저항(resistance)은 아프리카 역사학과 정치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프리카 민족주의(nationalism)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학제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시기별 주요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50-1980년대

- 민족주의 역사는 대부분 새롭게 독립한 국가에서 등장하며, 19세기 유럽 민족 국가들과 같은 형태로 분석되며 역사와 정치가 어떻게 융합되어가는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주를 이룸.[54] 식민지 지배가 여전했던 남부 아프리카지역의 경우 일부 학자는 독립 운동을 적극지지하는 한편, 다른 학자들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연구 출판물을 발간 등 정치적으로 나뉨. 예를 들면, 헤닝 멜버(Henning Melber)는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남서아프리카(South West Africa) 입국이 금지된 SWAPO 독립 지지자이며 영향력 있는 역사자였음. 서구 학자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민족해방군(NLM) 회원들은 망명 생활을 하며 유럽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아프리카 국가 독립 후 내각에서 주요 역할을 하였음.

- 예를 들면, 피터 카타비비(Peter Katjavivi)는 영국 런던에 있는 SWAPO의 해외 사무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미비아의 저항 역사라는 책을 출판함.[55] 이 책은 수세기 전부터 계속된 해방 투쟁과 유럽인들에 대한 저항을 소개한 내용임. SWAPO를 위해 '국가가 되기 위해(To Be Born A Nation)'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나미비아 국가의 첫 역사를 쓰려는 운동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56] 나미비아 독립 후, 피터는 학자이며 정치인 신분으로 나미비아 대학교, 나미비아 경제 정책 연구소, 나미비아 국립 유산 위원회 등의 교육 기관과 의회에서 근무하였음.

- 요컨대, 새로운 국가가 생성되며 역사는 새로운 정권의 정당화의 역할을 하였음. 즉, 아프리카의 역사는 독립 선언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1990년대 실질적 독립을 이룩한 나미비아의 경우 더욱 이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나며 역사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가 연결되어 발전하였음.

○ 1980-2000년대

-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는 민족주의 저항에 대한 재해석이 확산된 시기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독립을 이루었고 해방 운동도 완전히 확립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해방운동이 자유 국가를 위한 행위와 어긋나며 환멸을 가져가주기 시작하였음. 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서구의 학자들도 나미비아 SWAPO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음.

54) Stepfan Berger and Christoph Conrad, *The Past as History: National Identit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in Modern Europ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5).

55) Peter H. Katjavivi, UNESCO, *A History of Resistance in Namibia* (Paris: UNESCO Press 1988).

56) SWAPO, *To Be Born A Nation: The Liberation Struggle for Namibia* (London: Zed Press 1981).

- 아프리카 저항 역사에 대한 재해석은 해방운동의 주체를 단일하게 해석하는 것에 비판적이였음. 여러 민족의 다양한 해방운동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아프리카 해방운동은 아프리카 민족운동으로 간주되었음. 특히 많은 학자들은 독립을 위한 투쟁기간 동안 해방 운동 조직들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도 지적하고 있음. 예를 들면, SWAPO는 나미비아 오시밤보어를 사용하는 오시아밤보(Oshivambo)이 지배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 2000년대 이후 민족 해방 운동은 역사적 전유물과 관련되며 발전하였음. 특히 국가 건설(national building)과 권력의 정당화를 위해 과거 해방의 역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지점에서 본 연구는 나미비아에서 북한과 협업한 역사적 전유물이 어떻게 정당 통치를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분석하고자함.

-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만수대 기념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음. 왜냐하면 출처를 찾고 접근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비교적 최근에 완공되었기 때문임. 미술사학자 메건 커크우드(Meghan Kirkwood)는 나미비아의 북한 건축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럽 중심 문화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일한 근대성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구적인 장에서 나미비아 기념물을 다루음.[57] 또한 라인하트 쾨슬러(Reinhart Kössler), 엘케 주언(Elke Zuern), 하이케 베커(Heicke Becker), 얀바트 게발트(Jan-Bart Gewald)는 이 기념비가 국가 중심 중심의 기억을 제작하는 용도로서 분석하였음.[58]

■ 북한과 나미비아 해방운동

- 남서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의 다섯 번째 주로 간주되었으며, 남아프리카 정부는 북한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문공화국이 보낸 서신을 남서아프리카 내무부 장관이 보고 자칭 한국인(self-styled Korean people's) 정부가 발급한 여권에 비자를 부착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으며 서울에 주재하는 정부에서 발급한 여권만 비자가 허용되었음.[59]

57) Meghan L. E. Kirkwood, "Postindependence Architecture through North Korean Modes: Namibian Commissions of the Mansudae Overseas Project," in Gitti Salami and Monica Blackmun Visonà (eds), *A Companion to Modern African Art* (New Jersey:Wiley-Blackwell 2013), pp. 548-571.

58) Reinhart Kössler, "Facing a fragmented past: memory, culture and politics in Namibi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33.2* (2007), pp. 369-372; Elke Zuern, "Memorial politics: challenging the dominant party's narrative in Namibi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50.3 (2012), pp. 493-516; Jan-Bart Gewald, "Herero Genocide in the Twentieth Century: Politics and Memory," in John Abbink, Klaas van Walraven, and Mirjam de Bruijn (eds), *Rethinking Resistance: Revolt and Violence in African History*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3), pp. 279-304; Heike Becker, "Commemorating heroes in Windhoek and Eenhana: memory, culture and nationalism in Namibia, 1990–2010," Africa 81.4 (2011), pp. 519-543.

59) Tycho van der A. Hoong, *Monuments of power: the North Korean origin of nationalist monuments in Namibia and Zimbabwe* (Leiden: African Studies Centre Leiden (ASCL) 2019), pp. 45.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SWAPO 관리들간의 외교 방문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음. 나미비아 전쟁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을 보면, 1983년, 1986년, 1989년에 촬영된 아래 사진은 샘 누조마를 비롯한 SWAPO 관리들이 독립 전에 평양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음을 보여줌. 특히 나미비아가 독립하기 1년전인 1989년 사진은 샘누조마가 북한으로부터 자유독립훈장을 받은 사진이며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알려짐.

"저 샘 누조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의 미래 세대는 아시아에 굳건히 서서 조국 독립을 위한 대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60]

[그림 11] 샘 누조마 평양 방문(1983년)

출처: 저자촬영(독립기념박물관)

[그림 12] SWAPO 평양 방문(1986년)

[그림 13] 샘 누조마 초청 방문(1989년)

출처: 저자촬영(독립기념박물관)

60) Ibid, pp. 77.

- 공식 만찬에서 김일성과 샘 누조마는 아래와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짐.

김일성: "샘 누조마 동지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친밀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방문을 통해 한국과 나미비아 간의 우정의 역사를 개척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방문이 우리 당과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간의 우정과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국과 나미비아 국민들 간의 반제국주의 공동의 대의에 기여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샘 누조마: "[…] 귀하의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미비아 국민들을 위해 제공한 실질적인 물질적 지원, 정치적 및 외교적 지원. 귀하의 물질적 지원 덕분에 우리는 투쟁의 기치를 더 높이 유지하고 나미비아에 거주하는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주의 군대에 사상자를 입힐 수 있습니다."

- 나미비아 독립기념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흑백 사진은 북한과 SWAPO 관리들간의 외교방문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함. 해당 사진들은 1983년, 1986년, 1989년에 촬영된 것으로, 이를 통해 샘 누조마를 비롯한 SWAPO 관리들이 나미비아 독립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평양을 방문했음을 보여줌. 특히 1983년에 촬영된 가장 오래된 사진은 샘 누조마가 북한의 여군과 악수하는 장면을 담고 있음. 사진 속에서 누조마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채 밝은 표정의 북한 여군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으며, 그의 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 남성이 서 있음.

- 한편,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음. 1948년 북한이 수립된 직후 작성된 서신에 따르면, 당시 남아공 내무부 장관은 빈트후크 주재 서남아프리카 담당 장관에게 '자칭 한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에 비자를 부착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 이에 반해 서울에 주재하는 정부(대한민국)가 발급한 여권에는 비자 발급이 허용되었음.

- 이런 견지에서, 만수대기념물의 역사적 뿌리는 남한과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식민지배, 아프리카의 탈식민화, 냉전 등에서 찾을 수 있음.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한국 전쟁이후 남한과 북한은 새로 독립한 국가로서 국제 동맹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잠재적인 새로운 동맹국이였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온 겔던후이스(Deon Geldenhuys)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전쟁은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옥한 지역을 제공했으며, 이는 동조하는 정부나 현직 통치자들과 싸우는 좌파 혁명가들에게 군사 물자와 훈련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함.[61]

61) Deon Geldenhuys, "Pretoria and Pyongyang: Supping with sinners," *South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2.2* (2005), pp. 149-150.

- 북한은 1948년 창립 이후 전 세계의 반제국주의 세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음. 1948년부터 1960년까지는 공산주의 국가들과만 외교 관계를 유지했지만, 1960년 이후에는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과 접촉을 시작했음. 특히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북한의 제3세계에 대한 외교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음.

■ 남북한의 나미비아 독립 지원과 수교

- 공개된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사료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967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미비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였음.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결의된 내용을 지지하였음. 1981년 1월 7일 주영대사 대리는 영국외무성의 나미비아 담당관 접촉 후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아국은 유엔에서 주관하는 나미비아 관계가 각종회의 참석을 통하여 나미비아인의 불가양의 독립권과 민족 자결권을 인정하고 나미비아가 협상에 의거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독립을 성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천명하였음. 또한 아국은 향후 독립후의 나미비아와의 관계수립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유엔 주관 각종 나미비아 기금에 대하여도 기여금을 제공하여 왔는바, 최근에는 80.4.16. 유엔 나미비아 훈련원에 $50,000.00을 제공한 바 있으며 "나미비아인과의 유대 국제의 해" 선포 즈음 외무장관 명의 멧세지를 전달, 상기와 같은 아국정부 입장을 천명하였음.'[62]

- 공개된 '국교수립-나미비아' 외교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외교를 저지하는 비동맹 외교에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나미비아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표하였음.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 정부는 UN에서 모금하는 나미비아 기여금에 1979년 4월 10,000 달러를 기부하고, 1980년 3월 유엔 반아파르트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인종차별 철폐 국제의 날 행사에 50,000달러의 기부를 서약하고, 잠비아 소재 나미비아 훈련원을 짓기위해 SWAPO 대표부에 공식 제의하는 등 나미비아 독립 후 수교를 위한 사전기반 조성의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표 3] 유엔 나미비아 관계 기여금 제공 실적

(단위: 달러)

기금별 / 년도별	유엔 나미비아 기여금 (UN Fund for Namibia)	유엔 나미비아 훈련원 기금 (UN Institute for Namibia)
1978년	5,000	5,000
1979년	10,000	-
1980년	-	50,000

62) 국제연합과, 중부아프리카과, "나미비아 문제, 1980-81," 대한민국 외교부(1981년), pp. 37-39.

- 1990년 3월 21일 나미비아 독립 경축 행사에 한국 정부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여 Sam Nujoma 대통령, Gurirab 외무장관을 면담하며, 한국과 나미비아간 국교 수립 희망을 알렸으며, 독립후 단시일내 국교 수립 관련 조치를 약속하기로 함. 이에 독립 축하의 표시로 승용차 10대 기증 의사를 표명하였음. 이에, 한·나미비아 국교는 1990년 3월 21일에 수립되었으며 수교 의정서는 1990년 3월 28일에 서명함. 한국 정부는 국교 수립후 상주 공관을 개설하여 남부 아프리카지역과의 외교, 통상, 경협 관계 확대를 추진하고자하였음. 특히 1990년 12월 한국 대사관이 개설됨.

[그림 14] **수교 의정서 서명(1990년 3월 28일)**

(외교사료관)

- 한편, 북한도 나미비아와 1990년 3월 21일부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이 나미비아 독립 축전에 참석하였음. 22일 북한은 나미비아와 외교관계 설정에 대한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하였음. 한편, 나미비아-북한간 전통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받아들인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정책 수정의 사유로 그간 한국의 성의있는 우호적 조치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새삼 인식하게 된 바에 이유가 있다고 언급함.[63] 1991년 북한 또한 상주 공관을 개설하하고, 샘 누조마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 외교활동을 펼침.

[표 4] **북한-나미비아 주요 관계(1990-1992)**

날 짜	내 용	비 고
1991. 5	• 나미비아-북한간 문화협정	
1992. 6	• 나미비아-북한간 과학기술협력 협정문	
1992. 1	• 북한 최고회의 의장 양형섭 방문	• 김일성 생일 계기 대통령 방북 초청
1992. 2	• 당건설 경험에 관한 개발도상국 당들의 제3차 토론회 개최	• 짐바브웨 개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17개국 정당 등 참석
1992. 4	• 김일성 생일행사 개최	• SWAPO 부총재 참석
1992. 4	• 북한인민군창설 기념일행사 참석	• 국방부 인사부장, 보급책임자

63) 아프리카2과, “북한, 나미비아 관계, 1990-92,” 대한민국 외교부(1992년), pp. 11.

날 짜	내 용	비 고
1992. 6	• 북한 경협조사단 방문	
1992. 7	• 북한 사로청관계자 SWAPO 청년동맹회의 참가	
1992. 7	• 북한 상품 전시회 요원 입국	
1992. 9	• Sam Nujoma 대통령 북한 방문	• 무역협력협정 체결
1992.10	• SWAPO 간부 북한 연수보고	

(출처: 외교사료관 기반 저자 작성)

○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는 연대

- 한국과 북한은 나미비아 독립에 맞추어 수교를 하기위해 노력하여왔음. 최근 들어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나미비아 정부가 북한만수대해외개발(Mansudae Overseas Projects)에 순국선열기념탑(Heroes' Acre)건설(2002년 준공), 대통령궁건설사업(2008년 준공) 및 주요 인물 동상 건설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두 국가간의 관계에 대하여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64] 국제사회의 규탄 속에서 2017년 10월 나미비아 정부는 북한 정부와 관계를 끊은 것을 발표함.[65]

- 나미비아 SWAPO 핵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과의 관계가 집중된 이후 북한 대사관을 비롯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나미비아를 떠난 것으로 확인됨.[66] 나미비아의 집권당인 SWAPO도 과거 고위급에서는 북한과의 이념적 관계가 중요하였을지 모르나, 오늘날 젊은층의 SWAPO 관계자들은 이념보다는 실리적 관계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인터뷰하였음.

- 오늘날 나미비아에 한국 상주 대사관은 없으며, 주 앙골라한국 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음. 나미비아 또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공관은 없어, 주일본 나미비아 대사관에서 겸임함. 마찬가지로 북한 대사관도 남아공에서 겸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나미비아 국가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6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N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6/157),”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2016), at https://docs.un.org/en/S/2016/157.

65) Nyasha Nyaugnwa, Richard Balmforth and James Macharla, “Namibia dismisses UN expert's claims on North Korea ties,” *Reuters* (2017년 10월 25일), at https://www.reuters.com/article/us-namibia-north-korea/namibia-dismisses-un-experts-claims-on-north-korea-ties-idUSKBN 1CT257/.

66) John Grobler and Min Chao Choy, “How North Korea received millions in Namibia constructing a ‘white elephant’,” NKPRO (2021년 07월 06일), at https://www.nknews.org/pro/how-north-korea-received-millions-in-namibia-constructing-a-white-elephant/.

■ 연대의 유산들: 영웅릉, 독립기념관

○ 나미비아 영웅릉(Heroes' Acre)

- 영웅릉은 나미비아의 독립, 자유 및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기리기 위해 2002년 8월에 건립된 기념관임.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Windhoek) 외곽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아우아스 산맥(Auas mountains)에서 자리하고 있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독특한 흰색 오벨리스크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건축물임.

- 나미비아는 다양한 민족들이 결합된 국가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장투쟁 과정에서 승리하여 독립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군복을 입은 나미비아 민족과도 전쟁을 하며 민족간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하나의 나미비아를 만드는 것이 평화를 위한 핵심적 문제였으며, 정부의 다양한 활동 중의 하나가 영웅릉의 건설이었음.[67]

[그림 15] 영웅릉

(저자 본인 촬영)

- 2.96km의 규모로 세워진 영웅릉의 제작은 북한의 만수대창작사 해외개발그룹이 맡았음. 영릉릉의 구조는 정문의 검은색과 회색 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금색 국장으로 장식되어 있고 두 명의 무릎을 꿇고 있는 청동 여성상이 있음. 꽃은 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나미비아 국가의 독립과 자유의 유산을 상징함.[68] 화강암 도로가 단지로 이어지며, 방문객들은 5,000석 규모의 연단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연단 맞은편에는 커다란 검은색 화강암 벽 위에 놓인 영원한 불꽃과 전쟁 메달이 설치되어 있음. 8미터 높이의 거대한 청동 조각상은

67) 박계리, "나미비아 영웅릉(Heroes Acre)과 북한 만수대창작사," 『한국동북아논총』 26.3 (2021), pp. 163.

68) City of Windhoek, "Heroes Acre," City of Windhoek (n.d.), at https://www.windhoekcc.org.na/heroes-acre/.

군복을 입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총을 들고 있으며, 왼팔은 공중에서 휘두르며 수류탄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음. 조각상은 나미비아의 초대 대통령이자 국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누조마(Sam Nujoma)와 매우 닮았으며, 조각상 아래에는 누조마의 손글씨로 쓰여진 글귀가 다음과 같이 적혀있음.

‘조국 나미비아를 위해 희생된 영웅들에게! 샘 누조마, 2002년 8월 26일’
‘Glory to the fallen heroes and heroines of the Motherland Namibia! Sam Nujoma, 26 August 2002.’

[그림 16] 묘지석

(저자 본인 촬영)

[그림 17] 청동상

(저자 본인 촬영)

- 172개의 묘지는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묘지는 검은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묻힌 사람의 사진과 이름이 새겨져 있음. 전체 기념 공간의 가장 뒤에는 길이 35미터에 달하는 흰색 오벨리스크와 나미비아의 역사를 묘사한 대형 벽화가 조각되어있음. 대형 벽화는 노예로 끌려간 흑인 나미비아인들부터 독립까지의 내용이 조각되어있음.

[그림 20] 벽화

(저자 본인 촬영)

- 9명의 영웅이 상징적으로 최초 매장되었으며, 개막식 때 본 영웅문 연설문은 아래와 같음.

[표 5] 영웅문 피매장자

구분	이름(생애)	비고
1	카히메무아 응우바우바(Kahimemua Nguvauva) (1850-1896)	
2	네할레 리아 음핑가나(Nehale Lya Mpingana) (1908년 사망)	
3	사무엘 마하레로(Samuel Maharero) (1856-1923)	
4	헨드릭 위트부이(Hendrik Witbooi) (1830-1905)	
5	제이콥 모렝가(Jacob Morenga) (1875-1907)	
6	만두메 야 은데무파요(Mandume Ya Ndemufayo) (1894-1917)	
7	이품부 야 실롱고(Iipumbu Ya Tshilongo)(19875-1959)	
8	호사 쿠타코(Hosea Kutako) (1870-1970)	
9	안나 문군다(Anna Mungunda) (1910년대-1959년)	여성

"나미비아 국민들은 항상 나미비아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직접 써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선언하고 선포해 왔습니다. 식민지 억압과 정복의 멍에는 우리 영웅들을 비방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 동포 여러분, 이 기념비는 우리의 희생된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조상과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진정한 아프리카 전통 속에 세워졌습니다. […] 영웅의 기념비가 개막하면서 나미비아 국민인 우리는 나미비아의 역사, 승리의 역사, 단결의 역사, 헌신의 역사, 진정한 민족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나미비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과 고통과 희생을 통해 조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지나갔습니다."[69]

- 누조마의 연설에서는 이 기념비를 나미비아의 역사를 쓰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본 기념비는 SWAPO 정부에서 준비되었고 설계에 대한 의사 결정은 공개 토론 없이 SWAPO 관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 식민지 초기 투쟁의 영웅 9인을 상징적으로 묻으며 나미비아 평화와 독립을 가져다준 SWAPO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20세기에 식민주의를 반대했던 SWAPO를 훨씬 이전 역사에서의 저항 형태와 연결시킴으로써 SWAPO당은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로서의 위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음.

■ 독립기념박물관(Independence Memorial Museum)

- 2009년 독일 식민지 시대의 라이더 동상(Reiterdenkmal) 철거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독립기념 박물관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북한 만수대가 설계와 시공을 맡음.[70] 라이더 동상(Rider Statue)은 나미비아가 독일의 식민 통치 시절에 세워져 약 한 세기 동안 빈트후크 중심부의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음. 나미비아의 식민지 시대 동상인 라이더 동상은 1904부터 1908년까지 나미비아-독일 전쟁에서 희생된 독일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음. 이 전쟁은 독일 식민지 군대(Schutztruppe)가 헤레로(Herero), 나마(Nama) 및 기타 소수민족 수천 명을 학살한 20세기 최초의 대량 학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음.

-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 중심부 로버트 무가베 거리 위치한 독립기념박물관은 빈트후크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높이 솟아 있는 인상적인 건물로, 수도 안팎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볼 수 있음.[71] 나미비아의 공식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샘 누조마의 동상과 헤레로족을 위한 '학살 기념 동상' 등 두개의 새로운 기념비도 함께 조성되어있음. 은색 유리와 금도금을 입힌 5층으로 구성된 현대식 건물은 1890년에 지어진 알테 페스트 요새(Alte Feste Fort)와 1910년에 지어진 크리스투스교회(Christuskirche)의 식민지 시대 건축물을 물리적으로 가리고 앞서 언급한 라이더 동상을 완전히 대체하였음.

69) Tycho van der A. Hoong (2019), pp. 49.

70) 동상을 철거하라는 의회의 명령은 역사의 재기록과 유산 파괴에 대한 대중의 논쟁을 불러일으킴. 이는 2015년 남아공 케이프타운대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운동 '로즈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2020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세실 로즈(Cecil Rhodes) 동상 철거 운동 등 제국 식민지 시대의 인물의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는 대학의 탈식민지화를 촉구하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였음.

71) 나미비아 현지인들로부터는 커피머신이라는 별명을 지닌 건물임.

[그림 21] 라이더 동상(Rider Statue) 옆 해방 동상

(저자 본인 촬영)

[그림 22] 독립기념박물관

(저자 본인 촬영)

- 독일계 나미비아 사회학자인 라인하르트 쾨슬러(Reinhart Kössler)는 2009년까지 사실상 식민지 구성대로 빈트후크가 구성되어있었음을 지적하였음.[72] 이와 마찬가지로, 사빈 마르샬(Sabine Marschall) 교수는 독립 후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가 구 식민지의 상징을 해체하였지만 독립 후 나미비아 새 정부는 그러한 급진적 정책을 펼치지 못했는데, 그러한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백인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한 것라고 주장함.[73]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립 후 19년이 지난 2009년의 독립기념관 개관은 나미비아 국내 정치에서 SWAPO에 대한 비판과 실망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자신을 해방시킨 것이 SWAPO 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도 분석될 수 있음.

- 독립기념박물관은 2014년 3월 20일 히피케푸니 루카스 포함바(Hifikepunye Lucas Pohamba) 전 대통령에 의해 개관되었음. 본 박물관은 나미비아의 반식민지 저항과 무장 해방 투쟁과 관련된 자료와 기념품의 중심의 저장소 역할의 박물임. 3층으로 구성된 갤러리는 1층은 식민지 억압(Colonial Repression), 2층은 해방전쟁(Liberation War), '독립으로 가는 길(Road to Independence)'과 '역사 파노라마(History Panorama)'를 전시하고 있음. 박물관의 주요 콘텐츠는 사진, 유물, 회화, 벽화, 동상, 설치 미술 등으로 구성되어있음. 그리고, 가장 윗층은 루프탑 형태의 레스토랑으로 빈트후크 시내를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됨.

72) Reinhart Kössler, "Namibia's Century of Colonialism–a Fragmented Past in an Unequal Society," in Reinhart Kössler (ed), *Namibia and Germany: Negotiating the Past* (Windhoek: University of Namibia Press 2015), pp. 29.

73) Sabine Marschall, "Culture Heritage Conversation and Policy," in Sabine Marschall (ed), Landscape of Memory (Leiden: Brill 2010), pp. 31

[그림 23] 독립기념박물관 1층

(저자 본인 촬영)

[그림 24] 독립기념박물관 2층

(저자 본인 촬영)

- 독립기념관의 본질적 역할이 교육과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본 박물관의 정보 제공은 매우 부족함. 특히 해석적인 북한 예술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에서 더욱 정보 제공이 부실하게 느껴짐. 예를 들면, 독립투쟁 희생에 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배상이나 추모, 또는 생존했지만 피해와 상실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정의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 등의 정보는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음. 최근들어 나미비아 정부가 독일 정부의 배상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학살 관련 전시물은 희생자의 신원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었음. 박물관 마지막에 독립을 기념하는 의미로 독립이 제시되지만, 1990년대 이후 독립 이후 나미비아의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과거의 웅장함을 통해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잊게 하려는 역사교육으로 느껴짐.

[그림 25] 독립기념박물관 3층

(저자 본인 촬영)

[그림 26] 독립기념박물관 3층(파노라마)

(저자 본인 촬영)

■ 연대와 공공외교

-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독립 정부는 반식민지 해방 운동에 의해 형성되었음. 이러한 해방운동을 이끌었던 조직은 독립 후 정당으로 재편성되었으며,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다수가 집권하게 됨. 이러한 주요 정당의 통치 정당성은 독립 이전 수십 년 동안 주도한 폭력적인 투쟁으로 인정받게 되며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

- SWAPO는 1950년대 남서 아프리카 국가의 북부에서 활동했던 여러 조직이 합쳐져 1960년에 설립되었음. 오밤볼랜드(Ovamboland)로 알려진 북부 지역은 식민지 계약 노동 제도의 영향으로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오시밤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Oshivambo-speaking people)은 SWAPO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당의 주요 정책은 북부 지역의 관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74] 1970년대에 SWAPO는 유엔 총회에서 "나미비아 국민의 유일하고 확실한 대표"로 지정되며 공식적으로 당과 국민을 동일시되었음. SWAPO 조직은 대통령과 부통령,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군대, 다양한 부서(국방, 여성, 청소년, 정보, 보건, 교육, 노인, 외무, 노동 등), 학교와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정부와 유사하였으며, 외국 공관은 대사관 역할을 하는 등 중급 및 하급 장교로 구성된 전체 관료 조직이 존재하였음.

-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주의와 백인 정착민 통치에 반대하며 나미비아 국가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한 SWAPO는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오랜 게릴라전을 치르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다방면에서 유사한 역사를 지닌 나미비아와 북한은 서로를 연대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였음. 그 결과로 오늘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은 나미비아가 독립하고 SWAPO가 집권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 북한 만수대에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요구받는 기념비 수주는 외화를 벌 수 있는 현실적 수단임. 더 중요한 것은 기념비는 정권을 유지하는 엘리트에 맞는 과거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가진 것임. 이런 점에서 북한과 나미비아를 비롯한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결합은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온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음.

-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정치 세대가 출현하면서 SWAPO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북한과의 관계에 과거와 같은 연대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74) Lauren Dobell, *Swapo's Struggle for Namibia, 1960-1991: War by Other Means* (Basel: P. Schlettwein Publishing 1998).

「 V 」

나가며

V 나가며

■ 본 연구는 북한이 탈식민주와 발전담론을 매개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형성한 연대를 고찰하였음.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20세기 초반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혹은 근방의 유럽국가들에 의해 자행되는 만행을 고발하고 비판하였음. 당시 서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폭력적인 스탈린주의를 신봉하지 않았으며, 착취 당하는 아프리카 주민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지니고 있었음. 세계혁명과 인간의 해방을 모색하였던 사회주의 사상은 인종과 민족을 극복한 인간적인 연대를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벨기에 식민지 콩고,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 그리고 일제 식민지 조선에서의 식민통치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사회주의자들의 연대를 논의하였음.

- 세계 제 2차 대전이 종식된 후에도 식민주의는 곧바로 종식되지 않고 남아 있었음. 특히 냉전이 본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식민지를 유지하고자 하였음. 당시 새로운 패권국으로 성정한 미국은 식민지를 직접적으로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와 친화적인 탈식민운동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부들을 지원하였음. 이로 말미암아 과거 자유주의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학자들 예컨대 미국의 두 보이스와 알제리의 프란츠 파농은 사회주의를 수용하였음.

- 1955년 반둥회의 이후 북한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추진하였음. 특히 북한은 천리마운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립한 초기 산업화를 기초로 '자립적 민족경제'를 주창하였음.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자국의 역량을 집중시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음. 또한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전쟁경험을 반미전선의 용맹스러운 선봉장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음. 또한 사회주의 최강국인 소련과 인접한 강국인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주의 중견국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1960년대 '주체사상'은 5.25 교시와 같은 대내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관계속에서 자신감을 얻어 정교화되고 발전한 측면이 존재함.

- 북한의 지원은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측면이 강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실질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적화통일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목적도 존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와 백인 정착민 통치에 반대하며 나미비아 국가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한 SWAPO의 관점에서 여러모로 비슷한 역사를 가진 북한은 국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파트너로써 충분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지만 나미비아가 독립하고 SWAPO가 집권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요구받는 기념비 수주는 상징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외화를 벌 수 있는 현실적 수단임. 이러한 역사적 공유는 남부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짐바브웨, 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음.

- 하지만, 오늘날 나미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 집권당에 실망의 결과로 인한 낮은 지지율과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며 SWAPO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이념과 과거 역사 속 공유에 기반한 연대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에 기반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이러한 외교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 분야 발굴이 중요함.

참고문헌

강이수. 1997. “공장체제와 노동규율” 김진균, 정근식 편저『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서울: 문화과학사).

강호제. 2007. “북한의 기술혁신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북한 과학원의 현지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제연합과, 중부아프리카과. 1981. “나미비아 문제. 1980-81,” 대한민국 외교부.

김근배. 2015. “50~60년대 북한 리승기의 비날론 공업화와 주체 확립.”『역사비평』112.

김도민. 2020.“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보미. 2013.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1953~1955).”『아세아연구』 56(4).

김상범, 2020.“냉전기 북한의 자주연대 외교연구: 북한, 베트남, 쿠바 연대 외교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일성, 1981. “기계공업의 발전은 5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열쇠이다: 기계공업부문전국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7년 9월 11일”『김일성저작집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81.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전국생산혁신자대회에서 한 연설 1958년 9월 16일.”『김일성저작집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80.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6년 12월 13일”『김일성저작집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전후경제복구건설방향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3년 6월 5일.” 김일성,『김일성저작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치욱. 2009.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국제정치논총』49(1).

노서경. 2017.『알제리 전쟁 1954-1962 생각하는 사람들의 식민지 항쟁』(서울: 문학동네).

도미엔. 2022.『붉은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리명서. 1958.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에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 연구소『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론문집)』(평양: 과학원출판사).

박계리. 2021. “나미비아 영웅릉(Heroes Acre)과 북한 만수대창작사.”『한국동북아논총』 26.3.

박아름. 2021. “1962년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이탈 분석.”『역사문제연구』25(1).

박영근. 1958. “우리나라 공업 발전에서의 새로운 단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 연구소『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론문집)』(평양: 과학원출판사).

변은진. 2018.『자유와 평화를 꿈꾼 '한반도인'이소가야 스에지』(서울: 아연출판부).

아담 호크쉴드, 이종인 역. 2003.『레오폴드 왕의 유령』(서울: 무우수).

아프리카2과. 1992. "북한, 나미비아 관계, 1990-92." 대한민국 외교부.

옥창준. 2020. "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와 '평양 선언'"『통일과 평화』12(1).

이세영. 2013. "1950년대 북한 노동자층의 형성과 의식 변화"『한국사 연구』163집.

이소가야 스에지, 김계일 역. 1988.『우리 청춘의 조선: 일제하 노동운동의 기록』(서울: 사계절).

정병준. 2014. "1950년대 재미한인『독립』그룹의 非美활동조사위원회 청문회 소환과 추방."『이화사학연구』Vol. 2014, No. 48.

조기원. 2021. "독일, 1조5천억원으로 학살 사과…나미비아 "우리 존재에 대한 모욕.""『한겨레』at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997598.html.

주홍, 김일산 외 역. 2015.『중국 대외원조 60년』(서울: 푸른사상).

최익제. 2022."제 30차 유엔총회 북한의 한국문제(Question of Korea) 결의안 통과에 관한 연구: 북한

토니 클리프, 도니 글럭스틴, 찰리 킴버. 2020.『영국 노동당의 역사: 창당부터 코빈의 부상과 좌절까지』(서울: 책갈피).

프란츠 파농, 남경태 역. 2004.『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서울: 그린비).

City of Windhoek. n.d. "Heroes Acre." City of Windhoek. at https://www.windhoekcc.org.na/heroes-acre/.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80. 50 years of activitie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David W. Del Testa. 2002. "Workers, Culture and the Railroads in French Colonial Indochina, 1905-1936." French Colonial History, Volume 2.

Deon Geldenhuys. 2005. "Pretoria and Pyongyang: Supping with sinners." South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2.2.

Elke Zuern. 2012. "Memorial politics: challenging the dominant party's narrative in Namibi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50.3.

Frantz Fanon. 1967. Toward the African Revolution (New York: Grove Press).

Guy Vanthemsche. 2012. Belgium and the Congo 1885-19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ike Becker. 2011. "Commemorating heroes in Windhoek and Eenhana: memory, culture and nationalism in Namibia, 1990–2010," Africa 81.4.

Jan-Bart Gewald. 2003. “Herero Genocide in the Twentieth Century: Politics and Memory,” in John Abbink, Klaas van Walraven, and Mirjam de Bruijn (eds). Rethinking Resistance: Revolt and Violence in African History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Janos Kornai. 1992. The Socialist Syste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John Grobler and Min Chao Choy. 2021. “How North Korea received millions in Namibia constructing a ‘white elephant’.” NKPRO. at https://www.nknews.org/pro/how-north-korea-received-millions-in-namibia-constructing-a-white-elephant/.

Ju-min Park and Michael Perry. 2016. “Namibia cuts ties with North Korea state firms: South Korea govt, media.” Reuters. at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namibia-cuts-ties-with-north-korea-state-firms-south-korea-govt-media-idUSKCN0ZH3XU/.

Lauren Dobell. 1998. Swapo's Struggle for Namibia, 1960-1991: War by Other Means (Basel: P. Schlettwein Publishing).

Le Duan. 1965. “Socialist Industrialization the common cause of the entire people.” Le Duan. On the Socialist Revolution Vol.II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Masuda Hajimu. 2015.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eghan L. E. Kirkwood. 2013. “Postindependence Architecture through North Korean Modes: Namibian Commissions of the Mansudae Overseas Project.” in Gitti Salami and Monica Blackmun Visonà (eds). A Companion to Modern African Art (New Jersey:Wiley-Blackwel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d. “China and Namibia.” at https://www.fmprc.gov.cn/mfa_eng/gjhdq_665435/2913_665441/3049_664124/.

Moch Faisal Karim. 2018. “Middle power, status-seeking and role conceptions: the cases of Indonesia and South Korea.”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2(4).

Nyasha Nyaugnwa, Richard Balmforth and James Macharla. 2017. “Namibia dismisses UN expert's claims on North Korea ties.” Reuters. at https://www.reuters.com/article/us-namibia-north-korea/namibia-dismisses-un-experts-claims-on-north-korea-ties-idUSKBN1CT257/.

Panivong Norindr. 1999. “The Popular Front’s Colonial Policies in Indochina: Reassessing the Popular Front’s ‘Colonisation Altruiste” in Tony Chafer and Amanda Sackur ed. French Colonial Empire and the Popular Front: Hope and Disillusion (London: Mcmillan).

Peter H. Katjavivi, UNESCO. 1988. A History of Resistance in Namibia (Paris: UNESCO Press).

Reinhart Kössler. 2015. “Namibia’s Century of Colonialism–a Fragmented Past in an Unequal Society.” in Reinhart Kössler (ed). Namibia and Germany: Negotiating the Past (Windhoek: University of Namibia Press).

----------. 2010. “Images of history and the nation: Namibia and Zimbabwe compared.” South African Historical Journal 62.1.

----------. 2007. "Facing a fragmented past: memory, culture and politics in Namibi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33.2.

Sabine Marschall. 2010. “Culture Heritage Conversation and Policy.” in Sabine Marschall (ed). Landscape of Memory (Leiden: Brill).

Stepfan Berger and Christoph Conrad. 2015. The Past as History: National Identit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in Modern Europe (London: Palgrave Macmillan).

Stephen Ellis. 2000. “Africa's wars of liberation: Some historiographical reflects.” in Robert Buijtenhuijs, Piet Konings, Wim M. J. van Binsbergen, Gerti Hesseling (eds). Hommes et sociétés; Trajectoires de Libération en Afrique Contemporaine: hommage à Robert Buijtenhuijs (Paris: Karthala; Leyde: Afrika-Studiecentrum).

SWAPO. 1981. To Be Born A Nation: The Liberation Struggle for Namibia (London: Zed Press).

Tycho van der A. Hoong. 2019. Monuments of power: the North Korean origin of nationalist monuments in Namibia and Zimbabwe (Leiden: African Studies Centre Leiden (ASC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6. “N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6/157).”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at https://docs.un.org/en/S/2016/157.

W.E.B. Du Bois. 2005. “China and Africa”in W.E.B. Du Bois. on Asia: Crossing the World Color Line (Mississippi: University of Mississippi Press).

Walter Rodeny. 2022. Decolonial Marxism: Essays From the Pan-African Revolution (London: Verso).

----------. 1972. How Europe Underdeveloped Africa (Bltimore: Black Classic Press).

“김일성수상의 령도밑에 귀국에서 달성한 경탄할만한 발전에서 탄자니아 인민들은 많은 것을 배울것이다.”『로동신문』1968년 6월 25일 1면.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양선언: 자력 갱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하여”『로동신문』1964년 6월 24일 2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성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이 환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민족해방전선대표 엘리아쓰 마누이뜨 까메로의 연설”『로동신문』, 1967년 9월 9일 9면.

“왜 평양 경제 토론회의 성과를 헐뜯으려 하는가? 제 2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대한 <쁘라우다>의 비방을 논박함”『로동신문』1964년 9월 7일.

북한과 글로벌 사우스 :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 맺기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SNUAC
Asia-Africa Center